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야담집 소재 귀신담의 문학교육적 활용방안
-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차 진 아

야담집 소재 귀신담의 문학교육적 활용방안

-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을 중심으로 -

심치열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차진아

인 준 서

차진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고는 교육현장에서의 고전문학이 갈래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다양한 작품을 통한 다채로운 고전문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 대안으로 야담집 소재의 귀신담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교과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야담집 소재의 귀신담을 소개하고 그 교육방안을 모색하였다.

야담은 당대의 사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허구성을 가미한 이야기로 작품 자체의 문학성과 설화와 소설문학의 교량적 역할을 하여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르의 난해성으로 인해 문학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18종 문학교과서에서는 야담의 명칭조차 통일되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귀신담은 한낱 황당무계하고 권선징악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로만 해석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귀신담은 소재 면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며 단편이라는 야담의 특성에 힘입어 완전한 작품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다.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귀신’이라는 소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환상성이 문학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끊임없이 변용되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귀신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귀신담의 형성 배경과 귀신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귀신담의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귀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긍정적 귀신관과 부정적 귀신관으로 나누고 긍정적 귀신관은 각각 시혜형, 보은형, 청원형으로 세분하고 부정적 귀신관은 현혹형, 징벌형, 패퇴형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에서 귀신과 인간과의 관계, 귀신이 되는 과정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귀신담의 층위를 이해하고 이를 바

탕으로 귀신담에 나타난 문학교육적 측면의 다의성을 찾을 수 있었다.

야담집 소재 귀신담의 문학교육적 다의성은 첫째, 귀신담을 통해 당시의 유교 이념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조선후기는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혼란상을 해결하기 위해 성리학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정절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원혼담과 조상신이 도와주는 이야기, 혹은 효행을 한 사람이 정려문을 받게 되고 부친의 목숨을 살렸다는 여러 야담작품 안에서 확인된다.

둘째, 귀신담에서는 결핍의 주체인 원혼과 인간과의 소통문제가 드러난다. 현실과 비현실의 존재인 귀신과 인간과의 소통은 원혼담과 현혹형, 보은형 등에서 두루 나타난다. 인간은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소통하기 시작하면서 유대감과 신뢰감을 쌓게 된다. 결국 귀신은 결핍을 해결하고 인간은 목숨을 건지거나 복록을 누리며 서사의 분위기도 공포에서 해학으로 변모하게 되는 서사과정을 확인 할 수 있어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당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초월적 대응으로써 귀신담의 효과이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가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초월적인 존재를 내세워 극복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

넷째, 귀신담의 문학적 환상성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다. 귀신담은 그 소재에서부터 환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허구의 미학적 본질이며 문학적 상상력의 근본조건이 된다. 이런 특징으로 오히려 귀신담은 인간의 욕망, 혹은 성과 같은 금기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회의 은폐된 이야기들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런 문학교육적 효용을 적절히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야담의 갈래 이해에서는 보충자료와 함께 직접 설화와 비교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차이점을 찾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야담에 드러난 시대 상황을 알기 위해 각각 조를 나누어 교사가 선정한 야담집 소재 귀신담 작품인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시신들을 물어준 박엽>, <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종희의 효성>, <주인의 원수를 갚은 유관의 계집종>을 읽고 의견을 나누어 총체적인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귀신과의 소통문제에서는 전통적인 원혼담인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과 그러한 원혼담이 현대에 와서 변용된 영화 <귀신이 산다>와 비교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매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학의 의미와 함께 전통적인 귀신담과 현대의 귀신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사 검토	7
3. 연구 범위	10
II. 귀신담의 형성배경과 유형분류	15
1. 귀신담의 형성 배경과 귀신론에 대한 이해	15
2. 귀신담의 유형 분류	21
1) 긍정적 귀신관	22
2) 부정적 귀신관	30
III. 야담집 소재 귀신담의 문학교육 방안	37
1. 7차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현황 및 문제점	37
2. 귀신담에 나타난 문학교육적 측면의 다의성	42
1) 귀신을 통해 본 유교이념 강화	46
2) 결핍의 주체인 원혼과 인간과의 소통	51
3) 현실적 문제에 대한 초월적 대응	58
4) 귀신담의 문학적 환상성	61
3. 귀신담을 활용한 학습지도안	65
1) 야담의 갈래와 특징 이해하기	65
2) 당시 사회상과 귀신담의 관련성 이해하기	68
3) 원혼과 인간의 소통 문제 이해하기	81
VI. 결론	90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문제제기

고전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곧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체험하는 것이며 선조들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런 고전문학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인간관계와 경험의 폭은 넓어지고, 그 작품이 시대적·지역적으로 광범위해질수록 독자는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고전문학학습은 직접 접할 수 없는 이전 시대와 선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줌으로써 학습자의 내면세계를 풍부하게 가꾸어준다. 또한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를 이해하며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려는 태도를 지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전문학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에 들어오면서 문학 교과서 안에서의 고전문학 작품 수록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교과서 출판사	수록 작품 수	고전 문학		현대 문학	
		작품 수	비율(%)	작품 수	비율(%)
교학사	177	55	31.07	122	68.93
금성출판사	181	71	39.23	110	60.77
두산	202	68	33.66	134	66.34
디딤돌	217	85	39.17	132	60.83
문원각	189	45	23.81	144	76.19
민중서림	286	70	24.48	216	75.52
블랙박스	166	59	35.54	107	64.46
상문연구소	146	36	24.66	110	75.34
중앙교육연구소	299	118	39.46	181	60.54
천재교육	205	74	36.10	131	63.90
한국교육미디어	227	68	29.96	159	70.04
평균			32.46		67.54

위의 표¹⁾에서 보듯이 7차 교육과정의 문학교과서에서 고전문학 작품의 수록 비율은 32.46%로, 67.54%인 현대문학 작품에 비하여 1/2수준도 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문학교육에 있어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고전 문학이 얼마나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지 짐작 할 수 있다. 이는 집필자의 성향과 함께 과거의 문학 유산보다 ‘지금, 여기’의 문학 현상을 중시하는 오늘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데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문학>이 하나의 교과목으로서 의도적으로 계획, 실천, 평가되어야 하는 교육과정이라면 심각한 갈래별 불균형을 초래하면서까지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만을 쫓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또 다른 문제는 고전문학에서의 산문 작품들도 주로 고전소설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이미 학습한 작품들이 중복해서 문학교과서에 수록됨으로써 ‘심화’로서의 문학교과서의 성격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구운몽>, <허생전>, <춘향전>과 같은 작품들이 18종 문학교과서에 중복되어 각각 4종, 4종, 7종²⁾에 실려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작품들은 전체 그대로 실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실려 있어 올바른 문학 작품의 감상을 방해한다. 물론 고전소설의 분량 자체가 워낙 방대하여 교과서의 지면과 수업시수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하나 도막난 작품을 다시 도막내어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을 교육할 때에는 작품의 장르와 상관없이 최대한 학습자에게 작품 전체를 읽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수업을 통해서라도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여 총체적인 문학 감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법적인 문제로는 고전문학의 교육이 교사의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개념 분석과 해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대학 입시 시험과 관련하

1)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문학교육학』제11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113-114쪽.

2) <구운몽>-민중서림, 중앙, 교학사, 디딤돌, <허생전>-교학사, 금성(상,하), 디딤돌, <춘향전>-블랙박스, 천재교육, 중앙, 두산, 상문(상,하), 케이스.

여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작품은 이해하기에 앞서 느끼고 맛보기 위해서 읽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감상과 느낌은 하나의 획일화된 생각으로 굳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더불어 고전문학을 교육할 때에는 고어의 어휘 분석에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측면이 지나칠 경우 작품에 담긴 정신적 가치나, 생생한 작품 속 현실을 체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고어의 학습을 외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품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고전문학작품을 접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오늘날의 학습자가 어려워하고,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학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면 더욱 세련되고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고 풍부한 갈래들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행 고전문학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학 교과서의 텍스트 선정에 있어 국민공통 기본교과인 ‘국어’ 과목 안의 ‘문학’ 영역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작품들과 겹치지 않도록 하면서 ‘국어’ 과목에서 소개되지 못했던 교육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정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접하여 고전문학교육을 풍부하게 할 목적의 텍스트로 장르적 측면과 소재적 측면의 양방향에서 소외되었던 야담, 그 중에서도 귀신담³⁾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야담은 『溪西野談』의 서문이 간결하게 말해 주듯이 그 내용이 사실적이든 허구적이든 흥미롭다고 여겨지는 갖가지 견문을 기록한 것이다(野談者 隨其見聞而記錄也). 야담의 표기 수단은 한문이므로 야담의 기록, 개작, 편집을 담당할 인물들은 주로 한문의 해독이 가능한 사대부 층이었으나, 일부 야담집은 중인층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담당계층의 이러한 국한성에도 불구하고 야담은 정통 한문문학과 달리 당대 사회의 갖가지 모순과 갈등 및 여러 계층에 걸친 인물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이는 야담의 상당부분이 민간에 떠도는 이

3) 귀신담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범위’에서 논하도록 한다.

야기들에 바탕한 것이라는 점과 그 작자층이 당시의 변환기적 사회상을 체험하면서 중세적 질서에 대해 비판 혹은 회의의 시각을 지녔다는 것, 또 야담 속 이야기들이 사실성과 허구성을 두루 갖고 있다는 성격에서 기인한다.

즉 야담은 당대 현실의 핵심적 문제를 새로운 인물들의 구체적인 갈등을 통해 생동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데에서 봉건사회 해체기에 싹트기 시작한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적 형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설화성과 소설성의 양면성을 갖는 인간의 이야기란 점에서 각별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야담 문학은 그 길이가 비교적 짧아 전문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길이가 긴 작품들은 작품의 일부를 실을 수밖에 없으나 이럴 경우, 나머지 부분들의 내용을 교사가 알려 주거나 학습자 스스로가 찾아 읽어야 하는데 이에 는 수업 여건이 마땅치 않은 문제점이 있다. 또 전문을 모두 수록하지 못하는 경우 무엇보다 작품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미 길이가 길고 문학적 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는 만큼 전문 수록의 장점을 가지면서 문학성도 갖고 있는 야담 작품을 선정하여 교육하는 것은 개별 작품의 이해를 보다 온전히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조선 후기 야담은 작자층이 당대의 구체적인 사회상을 체험하면서 다채롭고 새로운 역사상을 그려냈다고 하였다. 하지만 야담집에는 현실적·사실적인 내용 못지않게 초현실적이고 비사실적인 내용도 들어 있다. 조선후기 야담집에는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꽤 실려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귀신담이다.⁴⁾ 야담에서의 귀신담이 그 소재의 기이함으로 인해 현실성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면 이는 문학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일 것이다. 야담은 기록 시에 기록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 구비설화의 경우보다 개인적인 창작성이 우세하다는 점

4) 귀신담에서의 '귀신'의 개념과 범위는 대단히 넓다. 여기서 '귀신이야기'라고 할 때는 人鬼가 등장하는 이야기로 보고 들었으며 꿈에서 본 이야기까지로 한정해 둔다. 윤주필은 귀신론과 귀신이야기를 다루면서 귀신을 "단순히 죽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 공간이나 그 연장선상에 놓이는 자연 공간, 심리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이계적 존재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 고찰을 위한 시론」, 『국문학론집』 제15권, 단국대 국문과, 1997, 147~174쪽). 이는 동양적인 귀신의 의미로는 틀림이 없으나 여기에서는 인간과 귀신의 관계와 귀신이 되는 동인들을 살필 것이므로 귀신을 人鬼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에서 야담 소재의 귀신담에서 역시 작자층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오히려 당대의 사회상을 문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귀신담은 기이하고 황당무계하다하여 그 문학적 의미가 축소되거나 귀신이 주가 되는 이야기는 교육적인 텍스트에서도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귀신’이라는 소재는 인간에게 꼭 한번 닥치게 되는 삶과 죽음과 관련하여 죽음과 저승을 이야기할 때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귀신담은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전승되고 재창작되면서 무한한 생명력을 갖는 것이다.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의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때문에 인간은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삶의 안정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극대화될 수 있다. 이처럼 죽음이라는 문제는 삶과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인간의 정신생활에 중요한 기반이 되어 왔으며 인간이 죽은 후 간다고 여기는 저승에 대해서도 삶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할 만큼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⁵⁾ 삶이 인간의 인생에서 시작에 해당되고 죽음이 마감에 해당된다면 죽어서 가는 저승에서 존재하는 귀신은 어쩌면 삶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하며 이승에서의 삶과 저승에서의 또 다른 삶의 만나는 장이 되는 귀신담을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죽음에 대한 사유와 서로 다른 삶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나아가 자기성찰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귀신담은 이야기 자체의 소재면에서 학습자에게 흥미와 학습의 동기를 부여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짧은 이야기라는 야담의 성격의 부합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이다. 학습자가 고전문학을 접할 때 어렵게 생각하는 요소 중의 가장 큰 것이 ‘한문’에 대한 어려움과 소재에 있어 ‘현재사회와 연결되지 않는 생소함’이라고 할 때 현대어로 풀이한

5) 박종오, 「한국의 귀신설화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쪽.

야담에서의 귀신담은 그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나타나는 문학 교수 학습 방법으로써의 고전 문학 작품이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혼고주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⁶⁾는 점과도 잘 부합하는 면이다.

귀신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로 인간의 불안과 욕망 등이 점철되어 있다. 그런 이유로 ‘귀신’은 끊임없이 문학적 사유와 연결되어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는 귀신담이 현대에와서 문학작품으로서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변용되어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귀신담 교육은 문학을 하나의 고립된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포괄적인 문화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줄 것이다. 이는 결국 문학이 교실에서만 향유되는 것이 아닌 인간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흔히 귀신이라 하면 ‘공포스러운 것’으로만 여겨지던 학습자들의 편견도 귀신담을 교육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는데 그런 편견은 귀신담을 상업성과 연계하여 귀신을 원귀로 만들어 그 형상성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하면서 굳어진 이미지이다. 실제로 야담집 소재의 귀신들은 단순히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나 인간과 귀신이 서로 돕는 유형의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들에게 귀신에서 연상되는 왜곡된 이미지를 수정하고 나아가 그러한 귀신담에서 엿볼 수 있는 민중의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귀신담에서 귀신은 끊임없이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존재이며 그 귀신이 생성된 이면을 들여다봤을 때 소통을 원하는 귀신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사회상뿐 아니라 학습자의 내면화를 통해 현대사회의 소통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지금의 사회상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6) 교육부,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325쪽.

2. 연구사 검토

본고는 야담집 속의 귀신담의 교육적 활용을 논할 것이므로 기존의 귀신담 연구와 야담에서의 귀신담 연구의 성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귀신담의 연구는 자료를 정리한 작업⁷⁾, 귀신 이야기의 유형을 분류한 작업⁸⁾, 원혼류를 연구한 작업⁹⁾, 귀신관을 살펴본 작업¹⁰⁾ 등으로 나뉘 볼 수 있다. 그밖에도 환상성에 주목하여 귀신이야기를 미학적으로 접근한 김성룡¹¹⁾의 연구가 있다.

다음으로 야담에서의 귀신담 연구를 살펴보면 조선전기보다 조선후기의 야담집 안의 귀신연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야담’이라는 명칭 자체가 작품에 등장한 것이 1622년 『於于野談』에서부터이기 때문이다.

조선전기의 작품에서는 주로 용재총화의 귀신이야기를 다루는 연구가 있다.¹²⁾

-
- 7) 村山智順, 김희경 역, 『朝鮮의 鬼神』, 동문선, 1993.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 I·II, 집문당, 1992.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제5권,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 8) 이선훈, 「조선조 후기 귀신담 형성의 사회적 동인 연구-『청구야담』소재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곽진석, 『한국민속문학형태론』, 월인, 2000.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설화와 요괴』, 아시아설화학회, 2006.
 - 9) 김기현, 「아랑형설화고」, 『새국어교육』14·15호, 한국어교육학회, 1970.
강진욱, 「원혼형 전설연구」, 『구비문학』5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_____,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아랑형〉과 〈사그라진 신부원귀〉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12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1.
문상기, 「원귀설화연구」, 『부산한문학회』 제4집, 부산한문학회, 1989.
안병국,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1995.
김재용, 「귀신이야기의 기호학」,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 10) 박성익, 「고대인의 귀신관과 국문학」, 『어문논총』 제8집, 고려대 문과대학, 1967.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변모」, 『문학사와 철학사이- 관련 양상』, 한샘출판사, 1992.
윤주필,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시론」, 『국문학논집』15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조희웅, 「귀신의 정체」,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3.
 - 11)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12) 최정운, 「용재총화 소재 逸話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古典文學研究』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장윤선, 「조선 전기 귀신 담론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최정윤은 『용재총화』소재의 일화 중 귀신이야기를 신이한 이야기에 분류하여 성현의 귀신관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며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하였고 귀신 이야기가 문학작품으로 발전 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하였다. 조현설은 조선 전기의 서사문학사가 귀신이야기로 한층 풍부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이야기를 축귀담과 흑귀담으로 나누고 흑귀담 유형의 이야기를 지배담론에 시비를 거는 문제적 이야기로 풀어내었다.

다음으로 조선후기의 야담집 안에서 귀신담을 연구한 성과물로는 귀신담 형성의 동인과 의미를 연구한 것¹³⁾과, 작품 안에서 귀신과 인간이 교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¹⁴⁾, 귀신담 안에서의 미학적 근거를 찾는 연구¹⁵⁾ 등이 있다.

귀신담 형성의 동인과 의미를 연구한 성과물로 이선혜는 조선조 후기가 임병양란을 계기로 봉건 제도의 내적 모순이 드러나며 사회적 변동의 시기였던 것에 주목하여 당시 사회의 의식구조가 귀신담에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사구조의 유형을 인간이 귀신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 인간과 귀신이 대결하는 이야기, 인간이 귀신의 원한을 풀어 주는 세 유형의 이야기로 나누며 귀신담 서사구조의 발생 동인을 흥미 유발의 의도적 장치, 문제 상황의 극복구조, 윤리적 지표 제시로 보았고 귀신담의 서사의미의 발생동인으로는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한 보상적 의식구조와 유교이념의 강화를 들었다. 정환국은 『어우야담』과 『천예록』 등의 귀신담이 시대적으로 전란을 겪으면서 저승이라는 공간도 ‘일상의 공간’으

13) 이선혜, 앞의논문.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단편서사류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최기숙,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귀신’과 ‘자살’ 일화를 중심으로」, 『冽上古典研究』제16권, 冽上古典研究會, 2002.

14) 신원기, 「鬼神談에 나타난 人鬼의 관계 양상과 의미-『어우야담』과『청구야담』을 중심으로」, 『어문학교육』제21권, 한국어문교육학회, 1999.

윤혜신,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과 특징」, 『민족문화사연구』제34권, 민족문화사학회, 2007.

15) 김성룡, 「환상적 텍스트의 미적 근거 연구」, 『문학교육』제3권, 문학교육학회, 1998.

_____, 「고전 서사 문학을 중심으로 본 환상의 미학적 특성 연구」, 『국어교육』제102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이현주, 「『천예록』소재 신이담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로 대응되거나, 저승을 이용하는 대안적인 공간으로 확대되기까지 한다고 보았다. 최기숙은 18·19세기의 많은 야담집들을 아우르며 귀신을 남귀와 여귀로 나누어 서사의 의미를 살피고 특히 여귀에 주목하여 그것이 사회 구조적 모순과 폭력 속에 은폐된 언어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작품 안에서 귀신과 인간이 교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신원기는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을 대상으로 귀신담의 유형을 보완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로 양분하고 당대인들의 귀신관념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야담집 소재 귀신담에서의 리얼리티의 강화를 전대 귀신담과의 차이로 보았으며 뒷부분에서 짧게 귀신담의 교재화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윤혜신은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에서 욕망하는 존재이자 결핍된 존재로 변화된 귀신의 성격을 논하며 소통과 단절관계, 일방만 아는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귀신담 안에서의 미학적 근거를 찾는 연구로는 이현주가 『천예록』안의 귀신담을 신이담에 포함시켜 분류하면서 그러한 신이담이 17~18세기의 자연재해와 문제적 상황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초현실적 세계나 비현실에 대한 지향에서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 『천예록』소재 귀신담의 서사구조는 반복과 대조, 예시와 역전, 액자구성 등의 다채로운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과 소재의 신이함이 맞물려 낭만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밖에 귀신담과 문학교육을 연계하여 연구한 성과물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귀신이야기를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논한 하은하의 연구¹⁶⁾와 귀신담의 생명력에 주목하여 귀신 등장 이야기 향유의 문학교육적 효용에 대해 연구한 서유경의 논의¹⁷⁾가 있다. 서유경은 귀신담이 현대의 문화 양식인 영화로 재생산되면서 전통적인 원혼담과 연계되어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고전 텍스트만으로도 도달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학습자의 내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학습방안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16) 하은하, 『귀신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과치료, 2004.

17) 서유경, 「귀신 등장 이야기의 문화적 변화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제19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있다.

3. 연구 범위

귀신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귀신에 대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대상 텍스트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귀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귀신의 정의는 종교에 따라, 사상에 따라, 연구자들의 시각과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된다¹⁸⁾는 윤회설을 주장한다. 조선조의 귀신론의 전거가 된 『朱子語類』의 「귀신」장에서는 귀신은 세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하여 하늘의 귀신은 음과 양의 조화이며 사람의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되는 귀신이고 제사의 귀신은 하늘의 신(神), 땅의 시(示), 그리고 죽은 조상이라고 하였다.¹⁹⁾

선행 연구자들이 정의한 귀신의 개념도 연구목적과 인식에 따라 다양하다. 윤주필²⁰⁾은 ‘귀신’이라 함을 신령, 꾀것, 도깨비 등의 이계적 존재를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하효길²¹⁾은 “귀신은 사람이나 동물 등 무릇 생물이 죽은 후에 남는 혼령을 말하며,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심령의 영상으로서 비실존적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임동권²²⁾은 “신과 귀신이 이론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실제에서는 혼동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귀신이라고 말할 때에는 신과 귀신을 합쳐서 하는 경우와 신명으로서 신을 제거하거나 악신으로서의 귀신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두 개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룡²³⁾은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뜻한다“고 하였다.

18) “불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었다가 그 귀신이 다시 사람이 된다.” 『朱子語類』卷之三, 「鬼神」, “釋氏謂人死爲鬼 鬼復爲人.”

19) 이주행, 조원식 외 옮김, 『朱子語類』, 소나무, 2001. 127쪽.

20) 윤주필, 「귀신이야기의 설화적 전통과 범주」, 『도술어문』제13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97, 11쪽

21) 하효길, 「귀신」, 『한국민속대관』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22) 임동권, 『한국민속문화론』, 집문당, 1989, 243쪽.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귀신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로 人鬼 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도깨비 등의 이물까지를 포함하며 제사를 받는 하늘과 땅의 신까지도 포괄하는 범위로 사용되지만 좁은 의미로는 주로 ‘人鬼’의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인간과 귀신의 관계 안에서 구조와 의미를 논하고 그 교육적 활용 방안을 고찰할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의미를 ‘人鬼’로 한정한다. 또한 ‘귀신담’이라고 할 때에는 이승을 살다가 이승을 하직한 자, 즉 人鬼가 현실이나 꿈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직접 겪거나 전해들은 이야기까지를 포괄하기로 한다. 이는 야담의 성격 중 하나가 見聞을 기록한 것임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한편, 현실로 나타나는 귀신담의 경우에는 그 사실성에 입각하여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므로 보다 충격적으로 다가오며 이와 같이 진지하게 믿어지는 귀신담은 당대의 귀신관념과 시대상을 알아봄에 있어 보다 유용하다. 반대로 꿈으로 나타나는 귀신담까지 포함 한 것은 꿈으로 나타나는 귀신은 당사자와의 긴밀한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귀신담과 꿈이라는 환상적 장치의 사용으로 보다 다채로운 서사구조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포함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귀신담의 범위를 적용하여 두 문헌에서 작품을 선별한 결과 『어우야담』²⁴⁾소재 귀신담 23편과 『청구야담』²⁵⁾소재 귀신담 12편으로 구체화되었다.²⁶⁾

『어우야담』	
1.(7) 귀신을 감동시킨 김운란의 아쟁이	13.(164) 귀신도 돌보아준 권벽
2.(9) 유대수를 살린 유강의 현몽	14.(165) 순회세자빈택 신령
3.(62) 신막정집 귀신	15.(166) 죽은 후 소생한 명천군
4.(63) 성황신을 복위시킨 김효원	16.(167) 이경류의 혼령

23) 김성룡, 「비형이야기에 나타난 귀신 이야기의 구성 원리」, 『先淸語文』24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6, 377쪽.

24) 유몽인, 시귀선이월영 역주,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1996.(장서각본)

25) 시귀선이월영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국립중앙도서관본)

26) 제목 앞의 괄호 속 번호는 각 텍스트 안의 이야기 번호를 옮겨놓은 것이다.

5.(67) 아들 살해자를 목 벤 이순신	17.(169) 나무에 붙은 귀신
6.(73) 귀신을 쫓아낸 영석	18.(170) 홍귀달의 혼령에게 술을 대접한 송일
7.(79) 술사 황철	19.(171) 귀신 아내가 된 처녀
8.(82) 호정(狐情)을 물리친 황진중	20.(267) 비갈(碑碣)의 의미
9.(105) 성균관의 귀신	21.(268) 주인의 원수를 갚은 유인숙의 계집종
10.(161) 이항복을 지켜준 익재의 영령	22.(314) 시신들을 묻어준 박엽
11.(162) 삼척읍의 귀신 백두옹	23.(327) 저승에서 온 손님
12.(163) 재상을 보호하는 귀신	

『어우야담』에는 이 외에 (10) 요절시와 (57) 귀신의 노래에도 귀신으로 보이는 것이 등장하지만 내용이 아주 짧고 인귀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아 그저 존재 자체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했다.

『청구야담』	
1.(5) 귀물(鬼物)의 구슬	7.(96) 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종희의 효성
2.(7) 귀신과 속세의 연	8.(107) 음사의 귀신을 굴복시킨 방백
3.(22) 원한을 풀어준 수령	9.(142) 만년에 현달한 정효준
4.(39) 귀신에게 곤경을 당한 양반	10.(159) 이경류 혼령의 강립
5.(53) 현몽한 익재	11.(172) 김치의 신이한 행적
6.(64)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12.(181) 향우를 만난 거자

이들 야담집은 문화적, 사회적 변동기였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으면서도 조선 전기까지의 야담이 대체로 편폭이 극히 짧고 서술이 단순한 것에 비해 보다 발전된 서사적 전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어우야담』은 ‘야담’이라는 명칭이 작품집의 정면에 등장한 최초의 야담집으로 야담사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문학교과서²⁷⁾에서도 야담집으로서는 유일하게 교육되고 있을 만큼 문학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기에 유용한 텍스트가 된다.

27) 중앙교과서의 본문에 『어우야담』소제의 <수염잡고 손 맞는 주인>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어우야담』은 한글 번역본까지 포함해 20여 종의 이본들이 현전하고 있으나 원본으로 여겨지는 책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몽인의 12대 증손인 유제한은 가전의 잔존본에 여러 이본을 수집 보충하고 이야기를 유형 분류하여 1964년 5권 1책으로 된 만종재본(萬宗齋本) 『어우야담』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만종재본은 편찬자의 의도적인 유형분류로 인해 『어우야담』 본래의 기본체제가 깨어져 있으며, 유형분류도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데다, 더욱이 거기에 실린 이야기들이 전적으로 『어우야담』소재 이야기였던지의 여부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기존의 필사본들 가운데서 장서각본 『어우야담』의 텍스트로 채택하였다. 장서각본에는 총 340화가 실려 있어 만종재본 다음으로 많은 화수를 가지고 있으며, 소재 이야기들 사이에도 유기적인 부류화가 나름대로 이루어져 있어 원 필사자의 구성체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본은 동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학연구소에서 편찬해낸 『한국문헌실화전집(韓國文獻說話全集)』속에 들어 있어 일반인들 사이에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어우야담』의 전통이 이어져 『청구야담』, 『동야회집』, 『계서야담』의 삼대 야담집이 편찬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구야담』의 경우는 당시에 한글본으로 필사될 만큼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향유되었다. 또한 그 작품 수가 풍부하고 이전 시기의 여러 작가의 야담을 추려서 모아 놓은 일종의 ‘선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대의 야담집에 비해 내용이 훨씬 구체적이고 서사구조가 탄탄하여 그 문학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청구야담』은 서울대 권장도서100선에 선정되어 이미 작품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구야담』은 현재 판각본이나 활자본은 전하는 것이 없고, 약 15종 정도의 필사본이 전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필사본들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본 6권 6책’을 텍스트로 채택하였다. 이 본은 대표적인 필사본들 중 하나이면서 김기동 교수가 편찬하여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문헌실화전집(韓國文獻說話全集)』속에 영인 될 정도로 널리 유포되

어있기 때문에 채택하였다.

II. 귀신담의 형성배경과 유형분류

1. 귀신담의 형성 배경과 귀신론에 대한 이해

사람은 자아인식이 싹트면서 주변과 자신을 구분하기 시작한다. 이는 한 개인의 성장 과정이자 인간문화의 발전 단계이기도 하다. 자신과 그 주변이라는 양분법적 개념은 다양한 국면에 적용되면서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시공간을 형성하고 또 그 영역을 확인시키는 인식의 틀이 된다.²⁸⁾

그런데 일상적 시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배후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에게에는 본격적인 추상적 개념이 싹트고 상상력이 발동되었다. ‘나’와 ‘주변’을 넘어 알 수 없는 ‘다른 세계’라는 인식 단계는 개인과 문화의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반영하며 ‘귀신’은 그 ‘다른 세계’의 영역에 존재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늘 궁금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 문화에서 역시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고대로부터 토착적이면서 전통적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흥미에서 비롯되었다. 그 결과 이미 오래전의 문헌에서 정착되게 된 것이다. 원한을 품고 죽어 귀신이 되어 한풀이를 한다거나, 영웅적 인물이 귀신을 만나 퇴치하거나 귀신과 사람이 사랑을 하는 등 현재 우리 주변에서도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천 년도 넘게 전해지고 향유되고 있다. 특히 신화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었던 고대를 거쳐 중세적 낭만주의가 주도했던 고전문학에서 귀신이야기는 실로 중요 영역이 아닐 수 없다.²⁹⁾ 아울러 귀신 숭배와 관련된 종교적 현상들은 고대에서부터 존재해 온 일종의 보편적 현상으로서 하나의 문화적 원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의 토착적인 귀신은 또 다른 층위인 사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

28) 윤주필,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 고찰을 위한 시론」, 앞의 논문 147쪽.

29) 윤주필, 「귀신이야기의 설화적 전통과 범주」, 앞의 논문, 11쪽.

김하면서 유교사상 중 철학적 사유체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귀신에 대한 인식은 논설과 서사문학 작품에서도 풍부하게 드러난다. 전자는 ‘鬼神論’의 형태를 띤 철학적 성향의 논설에서 폭넓게 살펴볼 수 있으며 문학작품으로서의 귀신담에서는 이런 귀신론의 사유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도 하고 그것과는 별도로 문학적 인식 체계를 지니기도 한다. 하지만 문학작품을 통한 귀신담은 단순한 상상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현상간의 괴리를 문제삼으면서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고 바람직한 당위를 추구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원칙적 논의에 해당되는 鬼神論에 부합하는 것과 鬼神論으로는 다룰 수 없는 귀신담들도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귀신론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보다 명확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귀신론은 고려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조선전기에 들어 성리학 체계 안에서 귀신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이 유가의 귀신론은 주희가 체계화시켰는데, 조선전기의 귀신론 역시 그 전거가 된 『주자어류』의 「귀신」장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朱子語類』는 성리(性理), 이기(理氣)를 논한 다른 장들과 더불어, 상당한 양을 할애하여 귀신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귀신에 대한 담론은 이후 성리학의 귀신 담론에 하나의 모범으로 자리잡게 된다.

『朱子語類』에서는 「귀신」장의 첫머리를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귀신은 세 가지 다른 것이 있다. 하늘의 귀신은 음과 양의 조화이다. 사람의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되는 귀신이다. 제사의 귀신은 하늘의 신(神), 땅의 시(示), 그리고 죽은 조상이다. 세 가지는 비록 다르지만 귀신이 되는 까닭은 같다. 귀신의 다른 점을 알고 도 그 같은 점도 안다면 귀신의 도(道)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이를 보면 주자는 기본적으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人鬼와 제사의 귀신

30) 이주행, 조원식 외 옮김, 『朱子語類』, 소나무, 2001, 127쪽.

을 논하여 제사의 합당성을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주자류의 귀신론은 조선전기 남효온, 성현, 이황, 이이 등에 의해 체계화되는데 ‘귀신’이 음양의 굴신(屈伸)이며 천지자연의 모든 사물이 다 귀신이라는 새로운 귀신 개념을 주된 귀신개념으로 정립하였다.³¹⁾ 이황은 무귀론적 입장에서 귀신의 존재 가능성을 일정 부분 허용하면서 “있음과 없음의 사이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무귀론에 가까웠던 이황이 16세기 조선의 상황에서 예치의 확립과 사전(祀典)의 정비라는 시대적 과제에 유익하도록 하는 최적의 답안이었다. 이는 사림파인 이이가 유와 무의 중립적 귀신론을 표방한 것에서도 드러난다.³²⁾ 성리학의 이념 아래 주류였던 귀신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 귀신의 존재원리는 음양이기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 모든 자연과 삼라만상이 음양의 작용에 의한 귀신이라고 할 수 있다.
- 풀리지 않은 기의 울결로 인해 세간에서 말하는 귀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비정상적인 이치이다.
- 비정상적인 이치는 정상적인 이치로 되돌릴 수 있다.
- 섬겨야 할 귀신과 그렇지 않은 귀신이 있다.
- 같은 기를 가진 이들끼리 제사해야만 아침이 아니다.

이러한 귀신론은 귀신의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섬겨야 할 귀신과 그렇지 않은 귀신으로 나누어 제사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것에 해석을 부가하여 도리에 기초함으로써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이때 이 귀신론은 비로소 ‘사회적 담론’이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귀신론은 무속적인 귀신관념이나 불교적인 사후세계와 같은 사상을 타파하면서 성리학의 이념을 보다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1) 장윤선, 앞의 논문, 89쪽.

32) 김우형, 「조선 후기 귀신론의 양상-17·18세기 유귀론과 무귀론의 대립과 균열」, 『양명학』제19집, 한국양명학회, 2007, 189쪽.

33) 조선전기 귀신담론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는 장윤선의 앞의 논문을 참고.

하지만 조선전기의 귀신이야기는 축귀담을 대세로 하여³⁴⁾ 흑귀담도 나타나면서 귀신의 주된 이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사를 얻어먹을 수 없는 귀신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유가의 귀신론과 좀처럼 합치될 수 없는 묘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전기의 귀신이야기의 특징을 ‘조선 전기 주도적 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유가적 인식론에 어떤 인식론적이고 개념적인 혼란을 야기하여 유가적 주체의 구성에 균열을 일으키는데 기여했다’³⁵⁾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야기는 끊임없이 형성되고 향유되어 귀신론이라는 틀로만은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유가담론의 감시를 벗어나게 되면 언제라도 새롭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러한 변화의 징후는 16, 17세기의 정치적 사회적 격류를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물론 17세기의 송시열과 같이 이황과 이이의 성리학적 귀신관을 계승하고 고수한 학자들이 있었고 유가의 귀신론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서인의 성리학적 귀신관에 대해 허목과 윤희는 육경고학의 입장에서 고대 경전에 나오는 귀신의 존재를 승인하는 유귀론을 나타내게 된다. 이들은 모두 근기남인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학문적 정치적 대립관계³⁶⁾에 있었던 송시열과 서인에 반발해서 새롭게 고학에 근거한 유귀론을 주장한 것이다.³⁷⁾ 윤희가 볼 때 육경의 본래 의도는 귀신과 본체에 관한 형이상학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륜규범의 실천을 통해 형이상의 영역에 이르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성리학자들은 이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윤희가 비판하고자 한 것

34) 조현설, 앞의 논문 참조.

35) 조현설, 위의 논문 참조.

36) 허목과 윤희는 송시열과 예송(禮訟)논쟁에서 학문적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었다. 예송논쟁이란 1659년 효종이 승하함에 따라 계모 조대비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할지가 논란이 된 己亥禮訟과 1674년 효종의 부인이자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 장씨가 임종하자 다시 조대비가 며느리를 위해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할지 논란이 된 甲寅禮訟을 말한다. 송시열의 서인은 기해예송에서 1년복, 갑인예송에서 9개월의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허목과 윤희의 남인은 각각 3년복과 1년복을 주장했다. 이봉규, 『예송의 철학적 분석에 대한 재검토』

37) 김우형, 앞의 논문 183쪽.

은 성리학에서 귀신을 일상의 실천과 분리해서 형이상학 안에서만 논하는 태도였던 것이다.

허목이 제사 자체를 중시한 것과 달리, 윤희는 귀신과 제사가 정치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늘이 백성을 내시고 군사(君師, 군주이자 교사)를 내세워 맡아 기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자란 하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만민에게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임금이란 귀신의 주인이며 백성들의 의지처가 되고 만물이 그에 힘입어 완성되는 존재입니다. 책임이 크고 넓어 지킬 일이 무거우며 할 일은 많아서 만 가지 기쁨이 모여 있는 곳이니,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화(禍)와 실패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³⁸⁾

위의 윤희의 글처럼 군주는 한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관장하며 백성의 부모이고, 만물을 완성시키기도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군주의 지위에 대한 강조는 송시열 등 성리학의 신권(臣權) 사상과 대조되는 왕권 중심 사상을 나타내며 왕권 강화의 수단은 제례를 비롯한 예(禮)로 보았다. 윤희는 상제와 귀신을 형이상학적으로만 논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상제와 귀신은 반드시 실천 영역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서인 가운데 기민한 자들은 허목보다 오히려 윤희의 견해가 정통설에 훨씬 더 위협적이라는 점을 감지했다. 성리학 내부의 귀신에 관한 이기논쟁은 바로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18세기에 이르면 서인(노론) 내부에서 귀신을 理와 氣 어느 것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된다. 여기서 한원진은 송시열과 권상하로 이어지는 “理를 주로 하는” 정통설을 뒤엎고 氣를 중심으로 하는 유귀론을 제시하게 된다. 理보다 氣를 강조하면 할수록 귀신의 실재성을 주장하는 경향은

38) 『白湖先生文集』, 권4, 「擬上疏」(丙子), 123_055b. "惟天生民, 作之君師, 以司牧之, 故王者代天以理物, 作萬民父母. 君也者, 鬼神之主, 百姓之依, 萬物之所賴以成者也. 任大而守重, 責洪而務廣, 萬機之所聚, 一有所失, 則禍敗從之."

강해진다. 실제로 한원진은 제사에 있어서 없는 귀신이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귀신이 사당이나 神主에 깃들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³⁹⁾ 제사의 실천을 한층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유귀론에 힘입어 조선 후기의 야담집에서의 귀신담에서는 전 시기의 귀신담과는 달리 귀신의 형상, 실제 모습에 관심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같은 시기 서학을 민첩하게 수용하였던 이익은 처음 천주영혼설이 유교의 상제귀신설과 비슷한 것임을 승인하는 유귀론을 나타냈으나 점차 성리학적 귀신론으로 회귀하였고 말년에는 천주교를 불교와 비슷한 것이라고 비판함으로써 부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익의 이러한 회귀는 성리학적 귀신론으로의 단순한 복귀라기보다는, 유귀와 무귀의 틀을 넘어서는 성격을 지닌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기도 한 이익은 천주교에 대한 주자학의 우위를 확신하면서 과학기술을 지향하면서도 내적 자기수양의 기초를 상제귀신설에서 찾았다.

이처럼 주자학의 귀신론은 내부로부터 갈등과 균열이 생기다가 서학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했지만 이와 동시에 서학과의 통합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종교철학적 비전을 배태하였던 것이다.⁴⁰⁾

이처럼 조선후기는 16세기에 전성기를 맞은 유교가 더욱 공고히 되는 시기였으나 영·정조 시대에 들어 서학과 같은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 유입되고 귀신론 내부에서도 갈등과 균열이 생기면서 귀신담이 더욱 풍성하고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일조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39) (『중용』의) 이른바 ‘있는 것처럼 제사 지낸다’는 것은 다만 제사에 임할 때에 더욱 그 성(誠)과 경(敬)을 지극히 하여 평일에 모인 것으로 하여금 여기에 이르러 더욱 감격하고 드러나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이지, 여기에 이르러 비로소 그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만약 바야흐로 제사가 시작될 때 조상의 신을 모으되 제사지내기 전에는 막연하게 관련되는 것이 없다면, 선왕의 제례는 또한 그때그때 제사를 갖추어 그 신을 이르게 해야 할 것인데, 왜 하필이면 미리 그 사당과 신주를 만들어 (제사를) 행하겠는가? 『南塘先生文集』, 권15, 「答沈信夫」十月, 201_357d. “所謂祭如在者, 特於臨祭之時, 益致其誠敬, 使其萃聚於平日者, 至此益有以感格而著顯也, 非謂至此而方有其神如在也. 若使方祭始, 萃祖考之神, 而未祭以前, 漠然無所關, 則先王祭禮, 亦應臨時設祭, 以致其神, 何必預爲其廟貌神主爲哉.”

40) 김우형, 앞의 논문, 222쪽.

2. 귀신담의 유형 분류

귀신담을 고찰하기 위해 유형을 나누는 작업은 연구를 수월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은 설화를 자료로 하거나⁴¹⁾ 야담집으로 한정하거나⁴²⁾ 고전소설 등에 나타나는 귀신담들에 대해 나름의 분류작업⁴³⁾을 진행하였다.

귀신담의 유형을 나누는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곽진석은 귀신을 만나는 계기에 주목하여 우연히 귀신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우귀형(遇鬼型)과 원귀가 자신의 원한을 풀려고 하는 원귀형(冤鬼型)으로 나누었으며 김성미는 사실성 여부에 따라 귀신이 주인공이나 조력자로 등장해 인간과 같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공상담의 경우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귀신을 직접 보았거나 현실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한 현실담으로 크게 분류하고 공상담을 귀신복수형, 귀신소원(訴冤)형, 귀신 보은형, 귀신 퇴치형으로 나누었고, 현실담을 귀신 홀리기형, 귀신 보기형, 귀신 제사형, 귀신 도움형으로 나누었다. 박종오는 귀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관심을 가지고 크게 긍정적 귀신관과 부정적 귀신관으로 나누었으며 긍정적 귀신관은 시혜형, 보은형, 청원형, 계손형으로 부정적 귀신관은 현혹형, 징벌형, 패퇴형으로 각각 세부 유형화하였다. 신원귀는 인간과 귀신의 관계에 주목하여 보완

41) 박종오, 앞의논문.

김성미, 「귀신설화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김성미의 경우 귀신이 주인공으로 또는 조력자로 등장하여 사건 진행과정에서 주인공과 함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공상담의 경우와 두 번째 제보자 자신이 또는 어떤 마을에 사는 누가 귀신을 직접 보았다는 이야기 즉, 현실에서의 체험을 이야기한 현실(경험) 담으로 크게 분류하고 공상담을 귀신복수형, 귀신 소원(訴冤)형, 귀신 보은형, 귀신 퇴치형으로 나누었고 현실(경험)담을 귀신 홀리기형, 귀신 보기형, 귀신 제사형, 귀신 도움형으로 나누었다.

안병국, 「한국 원귀설화의 비교문학적 연구-한국문학의 원형탐색을 위한 시도」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임재해, 앞의 논문.

42) 신원기, 앞의 논문.

윤혜신, 앞의 논문.

이선혜, 앞의 논문.

43) 소설에서는 인귀교섭이나 명혼, 異界를 소재로 하거나, 원혼 등을 출현시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작품들이 많은데 이는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고 유형의 분류라고 했을 때는 원형을 담고 있는 설화 쪽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적 관계와 대립적 관계로 양분하였고 윤혜신은 귀신과 인간과의 ‘소통’을 문제로 소통과 단절관계, 일방만 아는 관계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이선훈은 귀신담의 서사구조에 따라 인간이 귀신의 도움을 받거나, 대결하거나, 원한을 풀어주는 이야기로 유형을 나누고 있으며 임재해는 인간과 귀신의 영향관계에 따라 다섯개의 유형⁴⁴⁾을 나누었다. 그리고 조현설은 귀신을 쫓는 축귀담과 귀신에게 홀리는 흑귀담으로 크게 양분하였다.

본고에서는 ‘귀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문학의 원형이라고 생각하여 우선 거시적인 틀을 가지고 들여다 볼 것이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귀신담을 논하였을 때 학습자의 귀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의식하고 귀신담 안에서 인간이 귀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계하느냐에 주목할 것이다. 따라서 설화의 귀신담을 긍정적 귀신관과 부정적 귀신관으로 유형화 한 박종오의 틀을 따르고자 한다.⁴⁵⁾ 하지만 박종오의 경우 긍정적인 귀신담의 하위유형으로 계손형(溪孫型)을 따로 설정하였는데 이런 유형은 본고에서 논의하기 위해 선별한 작품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논외로 한다. 그리하여 긍정적 귀신관에 입각한 귀신담은 각각 시혜형, 보은형, 청원형으로 나누어지며 부정적 귀신관에 입각한 귀신담은 현혹형, 징벌형, 폐퇴형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귀신담의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우 여러 유형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며 소설의 경우 복합적인 유형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다음의 유형들은 귀신담에서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1) 긍정적 귀신관

(1) 시혜형(施惠型)

44) ①귀신의 우위에 의해 사람이 귀신에게 홀리는 관계, ②사람이 우위에서 귀신을 제압하거나 퇴치하는 관계, ③귀신이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 ④귀신과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⑤사람이 귀신을 홀대한 탓에 벌을 받는 관계

45) 박종오의 논문에서 분류의 대상이 된 설화 텍스트로는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에 실려있는 귀신설화 자료 192편이다.

시혜형은 귀신이 인간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는 내용의 이야기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생명을 연장해 주기도 하는 이야기들이다. 이 유형에서 귀신이 등장하는 목적은 인간을 돕고자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귀신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는 인간과 교우가 없었던 제 3자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⁴⁶⁾ 조상신이 나타나 대가없이 도와주는 내용도 있다. 이는 제사문화와 귀신의 위계질서를 논했던 조선시대의 야담집에서도 많이 보인다. 다음은 구비문학 대계에 드러난 시혜형의 예이다.

- ① 백주대낮에 죽은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 점심을 차려 달라고 한다.
- ② 닭을 잡아 점심을 대접한다.
- ③ 죽은 친구가 점심을 맛있게 먹는다.
- ④ 살아있는 친구를 잡으러 왔는데 친구 된 도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 ⑤ 점심을 차려준 친구가 살 방도를 물어본다.
- ⑥ 친구 대신에 다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⁴⁷⁾

죽은 친구 덕분에 자신의 죽음을 면했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귀신은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의 귀신은 낮에 나타나 활동하는 것이 특이하다. 보통 초월적인 존재인 귀신은 역동적이고 일상적인 시간인 낮에 비해 비일상적이고 성스러운 시간인 밤에 활동하는 것으로 여겨졌다.⁴⁸⁾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낮에 활동하고 있으며 살아 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귀신도 인간처럼 낮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죽

46) '귀신이 가마를 태워주다' - 『대계』제 6집 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76쪽.

47) '낮귀신' - 『대계』제 6집 12호, 1028쪽.

48) 배영동, 「전통적 기제사를 통해본 조상관」, 『비교민속학』23집, 비교민속학회, 2002. 290쪽. - 박종오, 앞의 논문 25쪽에서 재인용.

있을 때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시혜형의 귀신은 조선후기의 야담집인 『어우야담』에서 5편⁴⁹⁾, 『청구야담』⁵⁰⁾에서 5편으로 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야담집에서 보이는 시혜형의 경우 조상신이 등장해서 도움을 주는 경우가 7편⁵¹⁾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이야기로는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항복을 지켜준 익재의 영령>이 있다. 이런 이야기의 대부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귀신들이 조상신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설화에서 모르는 사이의 귀신이 자주 등장하여 시혜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조상을 공경하고 제사를 중시하는 유교이념의 이데올로기가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조선 후기 귀신론에서 이익이 조상신을 귀신의 범주로 일반화하면서 기운의 존속과 동질성을 근거로 후손과 통한다는 점을 제사의 원리로 밝힌바 있다는 점에서도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소설인 「사씨남정기」에서 사씨가 누명을 쓰고 시부모의 묘 앞에서 지낼 때 죽은 시부모가 사씨의 꿈에 나타나 사씨가 떠나야 할 곳을 말해주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2) 보은형(報恩型)

보은형은 귀신의 결핍 상황을 인간이 해소해주자 인간에게 보답을 하는 내용이다. 시혜형의 귀신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존재라면 보은형은 도움을 받은 보답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이다. 때문에 인간이 먼저 도와주고 그에 따라 귀신이 도움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간혹 귀신이 먼저 인

49) 회수로는 9-〈유대수를 살린 유강의 현몽〉, 73-〈귀신을 쫓아낸 영석〉, 161-〈이항복을 지켜준 익재의 영령〉, 163-〈재상을 보호하는 귀신〉, 167-〈이경류의 혼령〉.

50) 회수로는 53-〈현몽한 익재〉, 96-〈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종희의 효성〉, 142-〈만년에 현달한 정효준〉, 159-〈이경류 혼령의 강림〉, 172-〈김치의 신이한 행적〉.

51) 『어우야담』에서 9-〈유대수를 살린 유강의 현몽〉, 73-〈귀신을 쫓아낸 영석〉, 161-〈이항복을 지켜준 익재의 영령〉, 『청구야담』에서 53-〈현몽한 익재〉, 96-〈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종희의 효성〉, 142-〈만년에 현달한 정효준〉, 172-〈김치의 신이한 행적〉.

간에게 도움을 준 뒤 인간이 귀신의 한을 풀어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보은형에서의 인간과 귀신은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인 것이다.

설화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시체를 묻어준 뒤로 고기를 많이 잡아 부자가 되기도 하고⁵²⁾ 물에 떠내려 온 버들고리를 건져주고 치성을 드려 부자가 된 경우도 있다.⁵³⁾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한을 품은 원귀는 그 대상에게 보복을 함으로써 한을 풀려고 하고 반대로 자신의 한을 풀어준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고 믿어왔다.⁵⁴⁾ 이런 유형의 이야기의 경우 그 구조상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교훈을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설화에서 귀신이 인간에게 도움을 받은 후 보답을 해주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떠돌아다니는 걸객이 어느 집에 머문다.
- ② 어머니 제삿날 제사를 지내드리지 못한 불편한 심기 때문에 밥을 못먹는다.
- ③ 집주인이 제사를 모셔주겠다고 하며 저녁 먹기를 권한다.
- ④ 셋째며느리와 둘째며느리가 제사 지내주기를 거부한다.
- ⑤ 첫째며느리가 제사를 모셔주겠다고 한다.
- ⑥ 첫째 며느리가 자기 조상 모시듯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준다.
- ⑦ 첫째며느리 꿈에 노인이 나타나 아들을 점지해 준다.
- ⑧ 걸객에게 물어 꿈에 나타난 노인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준 사람임을 확인한다.
- ⑨ 첫째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후에 정승이 된다.⁵⁵⁾

위의 이야기에서 자식이 걸객이어서 제사를 얻어먹을 수 없는 것은 귀신의 결

52) '보은 이야기' -『대계』, 제1집 08호, 351쪽

53) '손각씨 위해 부자 된 집안' -『대계』, 제2집 06호, 319쪽.

54) 한병천, 「귀신설화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53쪽.

55) '걸객에게 차려준 제사밥' -『대계』, 제7집 05호, 151쪽.

핍이다. 이런 귀신의 결핍은 집주인이 허락으로 해소되는 듯 보이지만 셋째와 둘째며느리가 제사 지내기를 거부하여 해소되지 않다가 첫째며느리가 제사를 지내 줌으로써 마침내 해소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아들을 점지해 준 것이고 그 아들이 정승이 된 것이다.

이런 보은형 이야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할 점은 ‘귀신의 결핍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가’이다. 설화에서 귀신의 결핍은 주로 제사를 받지 못하거나, 처녀로 죽은 경우, 혹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경우가 많고 그 밖에 사소한 결핍도 있다. 이런 결핍은 야담집에도 이어지며 조선후기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전란과 전란에 따른 기근으로 죽은 귀신들의 시체수습에 대한 보은형 귀신담⁵⁶⁾도 발견된다.

보은형에서 인간과 귀신은 서로에게 원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성의가 귀신의 결핍을 해소하고, 다시금 귀신의 보은으로 인간의 결핍이 해소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보은형의 귀신과 인간이 서로가 지닌 결핍을 패소해주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3) 청원형(請願型)

청원형은 귀신이 인간에게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에서 귀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목적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를 풀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혼담이 포함된다. 설화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사인(死因)을 밝혀달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이 완성하지 못한 시구(詩句)를 완성할 수 있도록 부탁하기도 하고, 묘자리를 옮겨 달라거나 가난한 자식 혹은 가족의 일을 부탁하기도 한다.

원혼담의 경우 인간과의 소통이 다른 유형의 귀신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풍부하게 나타나므로 인간과 귀신의 쌍방향적 소통문제에 주목해야 하며 아울러

56) 314-〈시신들을 물어준 박엽〉 -『어우야담』, 538쪽.

‘한’을 갖게 된 이유나 ‘원귀’가 되는 구조를 살펴 그 의미를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먼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원귀가 되어 나타나 자신의 사인을 밝혀달라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는 아랑형 설화이다. 원혼담의 경우 흔히 ‘여성원귀’를 떠올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혹은 하위계층에서 훨씬 더 ‘한’을 갖기 쉬운 사회구조를 짐작하게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밀양 원님에게 태도가 얹전한 아랑이라는 딸이 있다.
- ② 아랑을 사모한 사령이 겁탈하려 하나 실패하자 죽이다.
- ③ 아랑이 원혼이 되다.
- ④ 후임으로 오는 밀양 원님들이 부임한 첫날 계속 죽다.
- ⑤ 밀양읍이 폐읍이 되다.
- ⑥ 비범한 분이 지원하여 원님으로 부임한다.
- ⑦ 부임한 날 밤에 피투성이의 귀신이 나타나다.
- ⑧ 부사에게 자신의 죽은 연유를 밝히고 설원해 주기를 청원하다.
- ⑨ 부사가 원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다.
- ⑩ 다음날 관인들이 모였을 때 나비 한 마리가 범인의 머리 위에서 나풀거리다.
- ⑪ 범인을 잡고, 아랑각을 세워 아랑의 혼을 위로하다.⁵⁷⁾

이와 같은 아랑형 설화는 그 각편이 다양하지만 대개 위의 내용과 비슷하다. 이 이야기에서 아랑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면 원님들이 계속 죽어나갔지만 이는 아랑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랑은 사람을 해코지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해원을 위해 나타난 것이다. 아랑의 공포스러운 모습은 당시의 억울한 죽음을 상징하며 이를 보고도 죽지 않는 인물은 담이 세거나 호방한 기개를 갖춘 덕 있는 능력자이다. 성리학 적 귀신론에 입각했을 때 ‘아랑의 원혼’은 바른 이치의 귀신이 아니므로 제사를

57) ‘원혼이 된 아랑 남자’ -『대계』, 제2집 06호, 387쪽.

언어 먹을 수 없으며 결국엔 사라져야 할 ‘기(氣)의 울결’이므로 덕이 있고 기개가 호방하다면 마땅히 해코지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그 능력자는 원혼의 조력자가 되며 이때 상호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소통을 통해 원귀는 해원하고 범인은 죄를 받으며 원님은 그 후로 더욱 아래로부터 존경받는 지도자의 입지를 굳히게 되는 일말의 과정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아랑형 설화의 경우는 직접 원한의 상대를 징벌하지 않고 능력있는 조력자에게 부탁하여 해원함으로써 원통한 죽음이 관아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결국 ‘정절’을 중요시 한 여인으로 추앙받아 유가 이데올로기의 제도권 안으로 다시 편입되고 마는 양상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고발은 윤리적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한다. 특히 ‘아랑형’은 정절이라는 공론화된 가치에 초점이 두어진 경우인데, 유사한 문제의식이 ‘곡소리 없는 상옷’⁵⁸⁾과 관련한 이야기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살인접장 유공엽’⁵⁹⁾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도 원혼 발생의 계기는 죽음을 담보한 정절고수와 관련된다.

한편 여성원혼이 등장하는 귀신담을 원혼형의 대표격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남성원혼이 등장하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하지만 남성원혼의 경우 사회적 문제의식에 기반한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정면으로 문제시하는 유형이나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청할 때는 자신이 살아 있을 때 마치지 못했던 시구의 짝을 맞춰달라거나⁶⁰⁾ 자신의 묘를 중축해 주고 제사를 지내달라는 이야기⁶¹⁾가 존

58)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남편은 부친의 시묘살이차 산중에 있다/ 한밤중에 상복을 입은 남편이 와서 추워서 그러하니 자고 가겠다고한다/ 반대하던 아내가 끝내 동침을 수락하다/ 시묘살이를 끝낸 남편이 돌아와 보니 아이가 있다/ 사정을 알고 난 아내 또는 남편이 자살하다/ (남편이 살인혐의로 구금되다)/ 아내가 관장의 꿈에 현몽하여 흰 깃발을 들어 보이다(또는 아내 또는 남편이 직접적 해결방법을 찾다)/ 관장이 백기삼이라는 인물을 찾아 교유하다/ 관장이 곡성 듣지 않은 상복을 구한다고 하니 백기삼이 가지고 오다/ 그것을 물증으로 삼고 범인을 잡아 징치하다. 『대계 별책부록 1』, 395~396쪽, 강진욱,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제22집, 한국고전문학학회, 2002, 39~43쪽에서 개인용.

59) 서당학생의 연인이 보낸 편지를 가로챈 접장이, 학생에게는 밤늦도록 글을 읽게하고, 처녀를 만나러 가서 겁탈하려고 하나 처녀가 반항하자 죽이고 달아난다. 서당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그곳에 간 학생이 도리어 살인자로 지목되어 구속된다. 원님의 딸이 날아온 버들잎의 모양을 풀이하여 유공엽이 범인임을 밝혀 사태를 바로잡는다. 『대계별책부록 1』, 244쪽.

60) ‘귀신과의 대귀’ -『대계』제3집 01호, 69쪽.

61) ‘여장군 님을 달랜 이서구’ -『대계』 제3집 04호, 184쪽.

제한다. 하지만 여성원혼의 경우에는 정절과 같은 윤리적 문제의식이 보다 강세를 보인다.⁶²⁾ 또한 여성원혼의 출현동인에 성폭력이 우세한데 비해, 남성원혼의 경우 사회적 갈등이 뚜렷하게 문제되는 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성별의 차이는 문제 해결자를 돕는 방식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선비출신 청년은 글제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나⁶³⁾ 하층 여성원혼은 미래 예시라는 막연한 대안을 제공⁶⁴⁾한다.

이런 아랑형 설화는 『청구야담』에 유사한 형태로 다시 나타나지만 특이하게도 조력자가 남다른 지혜를 가진 한 무관의 처로 설정⁶⁵⁾되어 이야기를 끌어감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여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곧 조선 전기의 여인들이 그들 자신이 남과 다른 지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았으며 사회적으로 선양될 가치 덕목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후기에 와서는 지배층의 무능력에 의한 회의로 인식의 소박한 변화가 찾아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하더라도 여성의 능력이 부각된 예는 미미하지만 이는 후기 여성들의 의식의 발현, 혹은 그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이런 원혼담들은 고전소설인 〈장화홍련전〉, 〈숙영낭자전〉, 〈정을선전〉 등에서 두루 나타나며 나아가 현대의 수많은 원혼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귀신담으로 변용되었다.

62) 남자원귀의 경우 계층대립과 사회적 문제의식, 자아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강목발, 선거무장 이야기가 있고 세계의 폭력성과 죽음에의 고발을 내용으로 하는 박문수에게 글제 준 신랑 혼령이 있다. 강진욱, 위의 논문, 39~43쪽 참조.

63) ‘남의 덕에 과거한 박문수’ -『대계 별책부록1』, 292~293쪽. 서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박문수가 과거 보러 가다. 흰 가마 탄 여인이 밖을 내다보다/ 가마가 들어간 집으로 가서 유숙을 청하다. 여자는 그 집 머느리이다/ 밤중에 담을 넘어 별당으로 가는 남자모습을 보다/ 근처의 서당에 가서 머느리 고향에서 온 학동이 있음을 알아내다/ 상경하는 길에 어떤 청년으로부터 글귀를 받았는데 과거시험의 글제였다/ 글제후 귀향길에 그 집에 들린 박문수가 서당 학동을 붙잡아 범인임을 밝히다/ 글제를 준 청년은 신랑의 원혼이었다.

64) 해당자료는 계서야담 金相國某, 동야회집 映月菴收骸解冤 등에 수록되어 있다. 서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에서 공부하고 있는 선비의 꿈에 남편과 그 간부에게 죽임을 당한 여자가 현몽하여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고 선비의 미래 전정을 예언하다. 후일 그가 현달하여 원혼의 유기된 시신을 감장하고 억울함을 해소해준다.

65) 22-〈원한을 풀어준 수령〉 - 『청구야담』, 111쪽.

2) 부정적 귀신관

(1) 현혹형(眩惑型)

현혹형은 실제 귀신을 만났다고 하는 일종의 귀신 체험 이야기로 귀신담에서는 직접 체험한 것과 누군가 체험한 것을 들은 것까지도 포함된다. 인간이 귀신을 직·간접적으로 보거나, 혹은 귀신에게 홀려 심하게 고생하고, 심지어는 죽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장력(壯力)이 센 사람이 처갓집 소상(小喪)을 치르고 밤에 집에 오다.
- ② 외나무다리를 건너는데, 별안간 앞이 캄캄하더니 정신이 없어지다.
- ③ 여자가 비키지 않아 빨래를 하는 여자 위로 넘어가다.
- ④ 다리를 건너자마자 앞이 캄캄해지다.
- ⑤ 귀신에게 홀려서 밤새 수수밭은 헤맸는데, 집으로 돌아와 땃새를 앓아눕다.⁶⁶⁾

한밤중에 제사에 다녀오다가 외나무다리에서 빨래를 하는 여자를 만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수수밭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한참을 앓아눕는데 이는 귀신에게 홀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서 귀신은 주도적 입장에 있게 되며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은 나름의 방어를 취하기도 한다.

왔는지 들어가서 이라고 막 앓았은게 부인이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가
지고는,
“아이고, 저, 저, 저, 저놈 잠 보라고.”
소리가지는 백락같이 지르거든.

66) ‘귀신 이야기’ -『대계』제1권 02호, 493쪽.

“아이, 어째서 그라냐고, 내가 들왔는데. 내가 들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나?”

그란께,

“머리 더풀더풀한 놈이 지금 운목에 저라고 앉았다.”

그란께, 잔뜩 겁난께 그냥 이 당신이 그냥 정지로 쫓아나가서 식칼을 갖고 와서, 막 방바닥을 뚜둔스로 경을 읽었지요. 경을 읽어서 차근차근 팬찮했지마는 그런 일도 세상에 있어요⁶⁷⁾

질에가 그 귀경(구경)할라고 그래가지고 들왔는데 아이 인자 ‘저놈 죽여야 쓴다’하고, 쫓아 나올라 쫓아나올라 해서 그 고창영감이 돌쫓고에다 막 침 쫓고 침, 침을 놓고 이래갖고 막 밥을 해서 헛치고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결국 그 인자 병신이 되다시피 해갖고, 글로 인해서 세상을 떠꼈지라.⁶⁸⁾

위의 이야기에서 보이듯이 귀신은 흔히 인간과는 대척적인 거리에 있었던 일종의 ‘타자’로 인식되기도 하면서 사람들은 여러가지 민간의식을 통해 귀신을 쫓으려고 하였다. 귀신을 만났다는 사람의 체험담에서 귀신에 의해 질병을 얻었거나 심한 경우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켰고, 이런 귀신을 체험했을 때 방어적으로 사람들은 귀신을 쫓기위한 방어를 했던 것이다. 이때의 인간과 귀신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

이런 현혹형의 이야기들은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에서도 각각 8편⁶⁹⁾과, 4편⁷⁰⁾에서 발견된다. 여전이 후기의 야담집에도 귀신이 두려운 존재로 등장하는 현혹형의 귀신담이 있지만 간혹 특이하게 현혹형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완벽한 귀신과 인간과의 대립이라기보다는 귀신이 인간의 주변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67) ‘넘성이골의 귀신’ -『대계』제6권 07호, 453쪽.

68) ‘고기를 달라고 조르는 귀신’ -『대계』제6권 07호, 449쪽.

69) 『어우야담』의 73-〈귀신을 쫓아낸 영석〉, 105-〈성균관의 귀신〉, 162-〈삼척읍의 귀신 백두옹〉, 164-〈귀신도 돌보아준 권벽〉, 165-〈순회세자빈택 신령〉, 171-〈귀신 아내가 된 처녀〉.

70) 『청구야담』의 5-〈귀물의 구슬〉, 22-〈원한을 풀어준 수령〉, 39-〈귀신에게 곤경을 당한 양반〉, 107-〈음사의 귀신을 굴복시킨 방백〉.

그래서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익숙함으로 변해 귀신과 인간의 분간이 모호해지는 이야기⁷¹⁾들도 등장한다. 이는 귀신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는 한편 그런 존재와 유대 하고자 했던 인간의 심리가 발동해 귀신과의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내게 된 것⁷²⁾으로 볼 수 있다.

(2) 징벌형(懲罰型)

징벌형은 귀신이 자신에게 잘못을 한 인간에게 직접 벌을 내리는 이야기이다. 이 유형에서는 귀신이 자신을 홀대했거나 해를 끼친 인간에게 벌을 가하고자 나타난다. 단순한 홀대에서부터 자신을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까지 귀신이 인간에게 벌을 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신을 홀대한 인간에게 귀신이 벌을 내리는 이야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마을에 살던 사람이 남의 배를 빌려서 선원을 데리고 고기잡이를 나가다.
- ② 고기잡이를 하던 중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다.
- ③ 선주를 불러 땅에 묻어 주자고 하다.
- ④ 선주가 나무라는 바람에 송장을 거두지 못하고 바다에 떠내려 보내다.
- ⑤ 그 뒤 그 사람은 바다에만 가면 피해를 입다.
- ⑥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나, 결국 망하다.⁷³⁾

71) 39-〈귀신에게 곤경을 당한 양반〉 -『청구야담』, 185쪽. 서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씨 성을 가진 양반의 집에 귀신이 천정위에서 소리를 내며 박대하지 말고 밥을 달라고 하였다. 그 목소리를 다른 가족에게도 들려주어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하였으나 날마다 찾아와 음식을 먹으니 집안 식구들도 익숙해졌다. 주인이 쫓으려고 여러 방술을 썼으나 소용이 없어 미래의 회복을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일일이 대답해 주었다. 후에 귀신이 노잣돈을 주면 가겠다고 하여 어렵게 구해 보내고서는 집안 사람들이 기뻐하였는데 열흘이 지나 저번 귀신의 아내라는 귀신이 또 찾아와 날마다 왕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72) 정환국, 앞의 논문, 112쪽.

73) ‘소박당하고 원귀가 된 며느리’ -『대계』제6권 07호, 575쪽.

위의 이야기는 주검을 땅에 묻어주지 않고 그냥 바다로 떠나보내 피해를 입어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주검을 홀대하였다는 것은 곧 귀신을 잘 모시지 않는 것과 같다 하여 귀신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어도 집이 망한 것은 귀신의 조화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때 주검을 잘 묻어주었다면 집이 결국 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검 외에 사람을 박대해 결국 죽게 되었을 때 죽은 사람이 원귀가 되어 자신을 박대한 사람의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다.

- ① 임백호가 과객으로 돌아다니다.
- ② 단골이 굶을 하는 곳에서 사나흘 정도 놀다 나주로 내려오다.
- ③ 단골이 임백호가 보고 싶어 나주에 찾아오다.
- ④ 임백호가 거들떠보지도 않자 단골이 방죽에 빠져 죽어버리다.
- ⑤ 단골이 원귀가 되어 임백호가 하는 일마다 방해를 하다.⁷⁴⁾

만약 위의 이야기에서 임백호가 다른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여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의 홀대는 결국 여자의 ‘한’이 되어 원혼이 된 여자가 임백호를 벌하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홀대와는 다르게 자신이 저리는 악행 때문에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 ① 남이 장군은 어려서 서당에 다니다.
- ② 보리방아를 찧는 색시의 젓가슴을 보고 처녀를 욕보이려 하다.
- ③ 처녀가 반항을 하자 죽이다.
- ④ 남이 장군이 출세를 하여 상소문을 올리다.
- ⑤ 죽은 처녀 귀신이 상소문의 글자를 고치다.
- ⑥ 남이 장군이 역적으로 몰려 죽게 되다.⁷⁵⁾

74) ‘여자의 원한 한 임백호’ - 『대계』 제8권 08호, 419쪽.

75) ‘남이장군 일화’ - 『대계』 제1권 04호, 273쪽.

서사내용은 청원담의 아랑형과 비슷하지만 조력자를 통하지 않고 원혼이 직접 징벌하는 위의 이야기는 인간과 귀신과의 소통 없이 악한에 대한 징벌만 나타난다. 또한 죽은 자는 출세한 권력자로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더라도 자신이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교훈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징벌형이라 하더라도 귀신이 성별과 또 징벌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귀신과의 관계에 따라 징벌의 성격이나 강도가 달라진다. 여성원혼이 징벌의 대상자에게 복수할 때 주로 예언이나 괴롭힘을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반면 남성원혼이 복수를 할 때⁷⁶⁾에는 주로 대상을 집적 죽이는 구체적 행위가 드러난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대상이 자신의 자손일 경우⁷⁷⁾ 상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벌을 내리기는 하지만 함께 치료법을 알려주고 다시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의 이야기들은 귀신의 결핍을 모른 채하거나 억울하게 사람을 죽이거나 제사를 제대로 받들지 못한 사람들, 즉 당시에 가치관으로 이해할 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귀신에 의한 해가 미치는 이야기로 보은형과 같은 축에서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벌의 방법은 귀신의 성별 혹은, 대상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패퇴형(敗退型)

패퇴형은 귀신이 인간과 대결하여 물러나는 이야기이다. 원한을 품고 죽었거나 여타의 이유로 귀신이 인간을 괴롭힐 때 귀신과 인간이 싸워서 귀신이 지는 것으로, 비범한 인물이 귀신을 쫓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비범한 인물 때문에 귀신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결국 귀신과 인간과의 대결에서 귀신이 지고, 인간이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현혹형이나 징벌형이 귀신이 우위

76) '원혼의 복수' -『대계』 제6권 05호 301쪽. 여기에서 남성 원혼은 자신을 포함한 대감을 찾아가 검을 사용해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77) '제삿날 귀신의 말을 엿들은 과객' -『대계』제7권 17호, 585쪽.

에 있어 인간을 현혹하거나 징벌하는 이야기라면 패퇴형은 반대로 인간이 귀신보다 우위에 있어 귀신을 쫓는 이야기인데 이 때 인간은 평범한 인간이라기보다 덕을 갖춘, 혹은 비범한 정승과 같은 인물로 표현된다.

- ① 김판서하고 이판서가 서로 앞 뒤 집에 살았는데, 김판서가 비범하다.
- ② 이판서의 외동 아들이 아프데, 약으로 치료되지 않다.
- ③ 이판서가 김판서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다.
- ④ 김판서가 이판서의 집에 가서 신들을 불러 모아 사건의 연유를 듣다.
- ⑤ 이판서가 그릇을 팔러온 과부를 희롱하고 죽여서 시체를 유기한 사실을 알게 되다.
- ⑥ 김판서가 이판서에게 죽임을 당한 원귀를 불러내어 내기를 하다.
- ⑦ 원귀가 병안에 들어갔을 때 김판서가 병 입구를 막아 원귀를 잡다.
- ⑧ 이판서 아들의 병이 낫고, 김판서는 사라지다.⁷⁸⁾

사실 위의 이야기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판서이며, 귀신은 오히려 억울한 입장에 있다. 귀신은 이판서의 집안을 망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아이를 병들게 하지만 결국 비범한 김판서에 의해 저지당하게 되는 것이다. 비범한 인물은 귀신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알아차려 심지어 귀신들을 불러 모아 사건을 해결하는 절대 우위의 인물로 설정된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이 꼭 높은 벼슬의 인물들로 한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비범한 인물의 설정은 그런 인물을 알아보는 귀신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밝혀지는 셈이다.⁷⁹⁾ 이러한 능력이 있는 자 앞에서 귀신은 해코지를 하지 못하며 오히려 보는 것만으로도 도망을 가는 상황까지 생기게 된다.

78) '원귀를 귀신통에 넣은 김판서' -『대계』제2권 08호, 843쪽.

79) 임재해, 앞의 논문, 128쪽.

- ① 귀신을 보는 선비가 사람을 잡아가려고 하는 물귀신을 보다.
- ② 선비가 누나 제사를 지내러 가는 남자를 만나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다.
- ③ 물귀신이 이를 알고 따지자 다음번 사람은 보내주기로 하다.
- ④ 만삭이 된 여자가 물을 건너갔지만 귀신이 잡아가지 않다.
- ⑤ 선비가 귀신에게 이유를 묻자 뱃속의 아기가 정승이가 잡아가지 못한다고 하다.
- ⑥ 그 여자의 자식이 자라서 정승이 되다.⁸⁰⁾

귀신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기의 능력을 알아보고 해코지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외에도 함을 지고 가는데 잡귀가 붙어 가는 것을 본 남이 장군이 뒤를 따라가 보았더니, 귀신이 처녀 모가지를 누르고 있었는데 남이 장군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달아났다는 ‘귀신을 알아본 남이 장군’ 이야기⁸¹⁾나 제사 음식을 따라온 귀신이 음식을 먹은 처녀 배 위에 앉아 괴롭히는 것을 이항복이 노려보아 귀신이 도망갔다는 ‘오성 대감의 귀신 퇴치’ 이야기⁸²⁾ 등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후기의 야담집에도 이어져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에서 각각 6편⁸³⁾씩으로 나타난다.

또한 귀신과 대적하여 쫓아내거나 비범한 자의 등장만으로 귀신이 도망가는 경우와는 달리 귀신을 대접하고 달래어 보내는 방법의 폐퇴정도 있는데, 이는 귀신이 원래는 인간이었던 만큼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의미에서 당시의 사람들도 귀신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풀어주면 물러간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80) ‘귀신을 보는 선비’ -『대계』제2권 09호, 238쪽.

81) 『대계』제6권 08호, 379쪽.

82) 『대계』제8권 14호, 711쪽.

83) 『어우야담』의 62-〈신막정집 귀신〉, 63-〈성황신을 복위시킨 김효원〉, 73-〈귀신을 쫓아낸 영석〉, 79-〈술사 황철〉, 82-〈호정을 물리친 황건중〉, 164-〈귀신도 돌보아준 권벽〉, 『청구야담』의 5-〈귀물의 구슬〉, 7-〈귀신과 속세의 연〉, 22-〈원한을 풀어준 수령〉, 64-〈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107-〈음사의 귀신을 굴복시킨 방백〉, 181-〈항우를 만난 거자〉.

Ⅲ. 야담집 소재 귀신담의 문학교육 방안

1. 7차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현황 및 문제점

7차 문학교과서에서는 ‘야담’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야담이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문헌설화, 혹은 설화로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 한대로 야담이 문학교육적 가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르의 난해성으로 인해 야담을 설화라고 규정해버리거나 야담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고전문학교육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18종 문학 교과서 속에서 야담이라는 명칭의 사용여부와 야담과 관련한 교과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출판사	야담 단어 사용 여부 (대체어)	내용
①두산 (우한용 외)	X	(상)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②금성 (박경신 외)	O	(상) 야담 갈래는 학자들 사이에 다른 주장이 있음. (하)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 유몽인 - 설화집으로 표시.
③민중서림 (김창원 외)	X	부록에 연표가 있으나 어우야담은 속해있지 않음.
④천재교육 (홍신선 외)	X	(하)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⑤중앙 (조남현 외)	O	(하) 야담은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됨.(52쪽) 근대 여명기의 문화와 문학에서 일종의 설화라고 볼 수 있는 야담도 이 시기에 대량으로 나왔다고 소개하면서 유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談)』, 『청구야담(靑邱野談)』, 『동야회집(東野彙集)』을 언급하고 야담 ⁸⁴⁾ 에는 주를 달아 소개.
		Ⅱ. 한국 문학의 흐름 4. 근대 여명기의 문화와 문학 (8) 수업 참고 손 맞는 주인 - 유몽인 『어우야담』수록.

⑥디딤돌 (김윤식 외)	X (문헌설화 집)	(하) 조선후기에 『어우야담』을 비롯해 『청구야담』, 『계서야담』, 『동야회집』과 같은 문헌설화집 가운데에서는 단편 소설로 분류해도 좋은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 조선시대의 문학-〈심화〉-『해동야서』의 「이야기꾼」삽입.
⑦형설 (박호영 외)	O	(하) 야담 - 조선후기 한문 수필.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⑧교학사 (구인환 외)	X	(하)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⑨상문 (강황구 외)	O	(하) 야담 - 갈래의 성격이 복잡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갈래에 넣기 힘든 경우라고 설명.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⑩지학사 (박갑수 외)	X (설화집)	(하) 어우야담 ⁸⁵⁾ , 청구야담, 계서야담, 동야회집 - 조선시대 설화가 여전히 성행하였고 후기에 집대성된 설화집들이 나옴.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⑪케이스 (김병국 외)	O	(하) 성현의 『용재총화』- 설화와 야담을 엮은 설화집.
⑫문원각 (한철우 외)	X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유몽인) 표시.
⑬블랙박스 (한계전 외)	X (문헌설화 집)	(하) 『어우야담』- 조선후기에 설화 문학이 발달해 문헌설화집이 편찬됨.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갈래:수필) 표시.
⑭교학사 (김대행 외)	X	(하)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⑮지학사 (권영민 외)	X	(상) 부록 연표 중 어우야담(갈래:수필,설화) 표시.
⑯대한 (오세영 외)	X	X
⑰청문각 (최웅 외)	X	(하) 문학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⑱태성 (김상태 외)	X	(하) 문학 연표 중 어우야담 표시.

84) 야사(野史)를 바탕으로 흥미 있게 쓴 이야기. 주로 한문으로 기록되었으며 비교적 짝막한 이야기로 되어 있음 - 중앙 문학교과서 하, 122쪽 주. 또한 세 야담집을 거론한 후 ‘이러한 야담에는 실제의 삶을 사실적으로 진술한 면이 있는가 하면 당대의 사회상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85) 어우당 유몽인(柳夢寅)이 살았던 시기인 선조와 광해군 대에 걸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유,무명 인사들의 기행 일화(奇行逸話)를 모아 지은 야담집이다. 작자가 모반의 혐의로 처형됨에 따라 책이 빠진 것도 있다. 이 야담은 원래 10여 권인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 필사하는 사람에 따라 제각기 달라져서, 현재는 한문본 전질 12책, 또는 67책의 두 종류와 국문본 전질 2책이 전한다. -지학사(박)

먼저 18종 교과서에서 ‘야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교과서는 5종이었으며 야담집을 문헌설화집이나 설화집으로 표기해 놓은 교과서는 3종으로 나머지 10종에서는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았다. 야담이 당대 현실의 핵심적 문제를 새로운 인물들의 구체적인 갈등을 통해 생동하게 형성화하고 있는 데에서 봉건사회 해체기에 싹트기 시작한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적 형태로 평가받고, 설화성과 소설성의 양면성을 갖는 인간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담이라는 명칭조차 사용되지 않고, 또 교육되지 않는 현실의 교육은 분명 잘못이다. 또한 설사 ‘야담’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각 교과서마다 야담의 장르가 설화 혹은 수필로 통일성 없이 혼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블랙박스의 경우 교과서 내에서 설화 문학에 넣었던 『어우야담』을 뒤에 문학사 연표에서는 수필로 표시하는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야담’의 갈래적 특징이 중간·혼합적이며 통시적으로 변화했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야담집 속에는 사대부 일상생활의 자질구레한 일화, 여항에 구전되던 황당무계한 전설, 민담, 한시를 둘러싼 생각 및 사건인 시화(詩話), 유가이념 등이 생경하게 피력된 일종의 교술적 산문 등으로부터 당대 현실을 심각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작품 내적 대립구조를 형상화한 소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들이 공존하고 있다.⁸⁶⁾

야담의 명칭과 갈래문제는 지금까지도 야담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뿐 만아니라 국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심지어는 교과서의 집필진들까지 각각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김홍규는 야담을 주로 한문으로 기록된, 비교적 짙막한 길이의 잡다한 이야기들의 총칭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처럼 야담의 개념을 느슨한 윤곽을 그어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담이 다양한 내용, 성격의 이야기들이 뒤섞

문학교과서 하, 92쪽 주.

86) 이강욱, 「야담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연구전망」,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3』, 보고서, 2001, 489쪽.

이어 매우 방만한 균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담 안에는 실제 인물의 생애에서 있었던 일을 평면적으로 전달하는 사실담도 있으며, 역사적 사건이나 일화에 약간의 윤색이 가해진 이야기가 보이는가 하면, 등장인물의 실재성 여부가 어땠든 비상하게 날카로운 구성과 전형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나 세태의 일면을 묘파한 작품도 있다. 다시 말해 야담의 한끝에는 실재했던 삶에 관한 사실적 진술이, 다른 한쪽 끝에는 한 시대의 사회상을 집약하여 생생하게 드러내는 허구적 형상으로서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⁸⁷⁾ 이러한 야담의 특징 때문에 야담의 상위갈래를 하나로 풀어내기가 어려우며 야담의 명칭에서도 이우성·임형택은 한문단편, 장덕순은 한문소설, 이재선은 한문단형서 사체, 조희웅은 문헌설화, 현길언은 야담 등 다양하게 명명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상위갈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하나로 갈래가 순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을 버리고 한 갈래에 여러 갈래의 양식이 공존하고 혼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학사의 실상에 좀 더 밀착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⁸⁸⁾ 김연호는 야담의 갈래에 대해 야담은 통시적으로 볼 때 초기에는 실사를 기록해 정사에 실리지 않은 것을 갖추려는 유사적·잡기적 태도에서 출발 했지만, 단순한 우스갯소리를 통해 현실 비판 감각을 무디게 하는 소화나 외설담을 포괄하면서 개념이 전이되었고, 마침내는 세태를 풍자하는 근대적 의미의 소설로까지 넓혀져 간 이동 장르라고 규정하면서 야담이 교술과 서사를 포괄하면서 통시적으로 변화하는 장르라고⁸⁹⁾ 말한바 있다. 이러한 장르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야담은 교과서 안에서 일정한 방향을 갖지 못한 채 교육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작품을 이해할 때 무조건 문학의 기본 상위 갈래의 구분보다는 하위 갈래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게 더 중요한 만큼⁹⁰⁾ 야담이 서사갈래에 속하느냐 교술갈래

87)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130쪽.

88) 형설 문학교과서 上, 49쪽.

89) 김연호, 「야담 장르의 변천 소고」, 『우리어문연구』 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221쪽.

90) 교학사 (구) 上, 73쪽.

에 속하느냐의 논의보다는 야담이라는 하위갈래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오히려 갈래의 역동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갈래의 개방성과 유연함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런 갈래의 문체는 비단 야담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경기체가, 가사, 가전, 몽유록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김홍규는 이런 하위갈래들을 4분법의 상위갈래 외에 중간·혼합적 갈래를 따로 규정하여 다루고 있기도 하다.⁹¹⁾

또한 교과서 안에서의 야담이라는 명칭 사용은 1622년 유몽인의 『어우야담』에서 처음 사용되어 작품집에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야담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잠정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다른 용어와의 혼용을 지양하고 일관성 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 교과서 안에서의 야담 교육의 실태를 보면 문학교과서 18종 중 14종은 부록으로 주요 작품들의 문학사 연표를 싣고 있는데 1종을 제외한 13종이 야담집 중에서는 유일하게 『어우야담』을 표시하고 있었다. 이는 어우야담을 ‘야담’이라는 명칭을 표제에 붙인 최초의 책으로 문학사적 의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담집의 작품들이 교과서에 수록되는 예는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본문에 실려 있는 야담집으로 문학사 연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우야담』이 있다. 어우야담은 지학사(박)의 교과서에도 날개부분에 저자와 함께 꽤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교과서에서 야담집을 소개하는 경우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야담집이다.

한편 중앙 교과서에서는 야담을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주목하여 설화와 야담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주를 달아 야담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 문학의 흐름이라는 대단원 아래 근대 여명기의 문화와 문학을 소개하는 소단원에서 유몽인과 야담에 대해 소개한 후 어우야담의 표제와 함께 『어우야담』 속의 「수염 잡고 손 맞는 주인」을 수록하고 있다. 이 이

91) 김홍규, 앞의 책, 35쪽.

야기는 집안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상, 중, 하로 구별하여 대접하는 주인에게 손님이 정곡을 찔러 말하니 주인이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로 학습자에게 인간 차별을 경계하고자 하는 교훈성과, 부유층의 도덕적 몰염치를 비판하는 민중의식을 엿볼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담의 교훈성에만 주목하여 야담의 교육적 다의성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디딤돌교과서(하)에서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대단원 아래 조선시대의 문학의 심화 부분에서 『해동야서』 속의 「이야기꾼」을 수록하고 있는데 내용은 한 이야기꾼이 인색한 노인에게 노인과 같은 사람 이야기를 고담으로 지어 해줌으로써 노인이 깨달아 자신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교과서에서는 학습자에게 이 작품의 교훈성과 형식, 야담 소재의 실제성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야담에 등장하는 인물이 주로 현실에서 존재했던 인물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설화와의 차이를 둘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설화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헌설화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므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 귀신담에 나타난 문학교육적 측면의 다의성

위에서 간단하게 말했듯이 귀신담에 대한 이해는 문학의 원형으로서의 ‘귀신’을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귀신은 그 자체로 인간의 불안과 욕망 등을 내포하며 예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학적 사유와 연결되어 현대에까지 다양한 매체로 변용되어 생명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귀신담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때와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 결핍과 충족, 소통과 단절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마련해 줄 것이다.

아래의 표는 구체적으로 조선후기의 야담집 소재 귀신담에서 문학교육 측면의 다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소재의 귀신담을 위에서 밝힌 귀신담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기준, 즉 귀신이 출현하

는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귀신의 성별과, 출현 공간, 또 지인 여부에 따른 기준은 유형별로 분류한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소재의 귀신담의 개수와 연관하여 이해했을 때 조선 후기 야담집만의 특징을 보다 잘 드러난다. 또한 표에서는 기존 번역서에서 정렬한 화수를 같이 제시하였다.

			화수	귀신 성별	출현 공간	출현대상	知人여부와 정체
긍정적 귀신관	시혜형	어우	9	남자	꿈	유대수	조상
			73	남자	정당(正堂)	원씨집안 사람들	조상
			161	남자	꿈	이항복과 유모	조상
			163	미상	꿈	한준겸	모르는 사이로 신령
			167	남자	장막 벽 사이	이경준	동생
		청구	53	남자	꿈	이항복	조상
			96	남자	방 안(목소리)	이중희	외조부
			142	남자	꿈	이진경	단종
			159	남자	집 안	부인과 형	가족
			172 92)	남자	.	김공의 아들 백곡의 벗	벗의 아버지
	보은형	어우	7	미상	사당(목소리)	김운란	모르는 사이
			170	남자	문 밖	송일	아는 사이
			267	미상	꿈	유몽인	모르는 사이
			314	여자	길	박엽	모르는 사이
	청원형	어우	63	미상	관아	김효원	모르는 사이 (성황신)
			67	남자	꿈	이순신	아들
			169	미상	골짜기	이순신	모르는 사이 (전쟁에서 죽은 귀신)
		청구	22	여자	방 안	한 무관의 처	모르는 사이
			64	여자	창 밖	상공 김아무개	모르는 사이
			172	남자	관아	삼척부사아무개	관료(김공)
	부정적 귀신관	현혹형	어우	73	미상 (여자)	사안의 여동생 원씨의 몸	원씨 가족들
105				미녀	서제의 진사칸	유생과 기생	모르는 사이 (미녀)
162				미상	삼척 연근당	삼척부사	머리가 흰

			164	미상	집 안	권벽의 벗	노인	모르는 사이	
			165	미상	사당	집안사람 ⁹³⁾	신령		
			171	미상 ⁹⁴⁾	꿈	어느 선비	모르는 사이		
			268	미상 ⁹⁵⁾	꿈	순봉	모르는 사이		
			327	미상	꿈	이집중	모르는 사이		
		청구	5	남자	집 안	한 여자	모르는 사이		
			22	여자	방 안	밀양 수령들	모르는 사이		
			39	미상 ⁹⁶⁾	집 안	양반 심씨의 가족	모르는 사이		
			107	미상 (노인)	꿈	조령산을 지나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들.	모르는 사이 (조령산 신)		
			163 ⁹⁷⁾	남자	꿈	호상하던 객	모르는 사이 (한 관인)		
	정별형	어우	62	미상	집 안	집 주인	모르는 사이		
			63	미상	침방	김효원	모르는 사이		
			73	미상	여동생원씨의 몸	원사안, 조상, 영석(靈石)	차칭 형수 남씨		
			79	미상	집 안	황철	모르는 사이		
			82	여자 ⁹⁸⁾	집 안	황건중	모르는 사이		
		패퇴형	청구	164	미상	집 안	권벽	모르는 사이	
				5	남자	집 안	한 여자의 삼촌	모르는 사이	
				7	남자	봉산객사 ⁹⁹⁾	이병상	상 당한 사람의 부친	
				22	여자	방 안	한 무관의 처	모르는 사이	
				64	여자	창 밖	상공 김아무개	모르는 사이	
107	미상 (노인)	꿈	한 방백 ¹⁰⁰⁾	모르는 사이					
181	남자	폐사(廢舍)	무과 준비하는 거자 ¹⁰¹⁾	항우					

92) 이 이야기에서는 김공이 죽고 나서 김공의 아들 백곡의 절친한 벗이 추수(推數)를 하고 돌아와 모일에 죽을 것을 알고 백곡에게 부탁하기를 돌아가신 존장께 목숨을 연장해달라고 하니 죽은 아버지께 편지를 써 분향한 후 그 글을 태우고 나서 죽을 해를 넘기고 수십년이 지났다고 되어있으며 직접적으로 귀신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일이 허탄하고 망령스러운데 가깝지만, 김공의 정령은 다른 사람과 크게 달랐다.’고 말한 논평같이 목숨연명을 죽은 김공이 한 일이라 믿고 있는데서 간접적인 귀신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93) 순회세자빈의 집안 사람이 제사를 잘못 지내어 세자빈이 요절하고 순회세자도 병들어 죽었다.

94) 다만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귀신이 “내가 새로 아름다운 부인을 얻어 몹시 사랑하였는데”라는 말에서 남자귀신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95)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나타나’ 라는 말과 ‘베개 속에 해골이 있었다’라는 말로 인귀의 등장을 나타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문맥을 고려했을 해골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인 유인숙의 것이었고 그 베개에를 베고 자던 원수는 고질병을 앓게 된다는 데에서 인귀등장의 현혹담으로 분류하였다.

96) 후에 귀신 부부가 모두 왔다갔음이 드러난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귀신담의 모습을 귀신담의 유형과의 관계에서 간단히 고찰해보면 먼저 긍정적 귀신담 중에서도 시혜형에서 조상신의 등장은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에서 많은 화수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에 조상신을 모시는 유가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되어 생긴 현상으로 보이며 이 때 나타나는 조상신 모두가 남성이라는 것 역시 이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상신의 경우 출현대상과는 아는 사이로 주로 꿈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꿈이라는 환상적 장치가 인간의 의식과 결합하여 지인이 등장하기 좋은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청원형의 경우 귀신의 성별이 비슷하게 나타나나 원혼담의 경우 여성원혼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당시 소외되었던 계층이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은 정절과 관련된 윤리의식의 문제로 인해 원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 청원의 경우엔 사소한 이유들과 더불어 전란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청원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청구야담』에서 이런 청원형에서 귀신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비범한 인물이 여성으로 설정되는 점이다. 이는 이전의 여성인물의 형상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후기의 지배층에 대한 회의와 여성의 자의식 발현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귀신관 특히 청원형의 경우는 귀신과 인간의 소통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부정적 귀신담에서는 비범하고 능력있는 인물은 귀신에게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귀신을 물리나게 할 수 있으며 대부분 그 인물들은 남성으로 설정되어 패퇴

97) 이 이야기는 한준겸이 평안도 관찰사로 있을 때 아버지의 초상을 만나 봉산을 지나다 상여를 객사에 안치한 것이 발단이 되는데 귀신이 호상하던 객의 꿈에 나와 객관을 죽은 상여로 더럽힌다 하여 준겸을 잡아들이라 하였으나 준겸을 지키는 신령이 많아 결국 그 아들이 죽음을 맞게 되었다. 하여 귀신은 객의 꿈에 출현하지만 가위를 놓리는 작은 피해를 보지만 준겸의 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98) 이 이야기의 제목은 ‘狐情을 물리친 황건중’으로 귀신으로 등장하는 아름다운 미녀가 여우인 것을 암시하고는 있지만 인귀의 형태로 나타나므로 선정하였다.

99) 봉산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에서 동쪽 지점에 있는 옛 읍. 객사는 권패를 모셔두고, 왕명을 받들고 오는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머물게 하는 집.

100) 관찰사.

101) 과거를 보는 선비.

형의 귀신담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은 인물의 경우 현혹되어 병을 얻거나 죽게 되어 현혹형의 귀신담을 만들어 낸다. 또한 징벌형의 경우 긍정적 귀신관의 보은 형과 한축으로 보아 권선징악의 윤리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귀신을 통해 본 유교이념 강화

조선은 유교를 주창하는 세력들에 의해 건설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고려 불교의 폐해를 비판하고, 무속의 음사를 규탄했다. 이런 와중에 귀신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귀신이 국가적 대사의 하나로 본 제사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여 이들의 과제는 무속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초월적 세계나 귀신과 그것으로 인한 폐단을 부정하면서도 제사를 받는 귀신을 긍정해야 하는 다소 모순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 때 그들은 두 가지 해결점을 찾았다. 하나는 성리학의 귀신론을 통해 귀신을 해명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귀신을 국가의 질서 내로 끌어들여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귀신담이 모두 이런 과제에 부응하는 내용인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 성리학의 이념에 맞고 국가의 질서 안으로 편입될 수 있는 내용의 것도 적지 않았다.

다음은 『어우야담』과 『청구야담』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의 이야기로 조상신 유모의 꿈에 나타나 이항복을 살리는 이야기이다.

- ① 돌도 되지 않은 항복과 유모가 우물가에 있다.
- ② 유모가 조는 사이 항복이 우물에 빠지려 하다.
- ③ 유모의 꿈 속에서 큰 백발 장부가 아이를 보지 않는다며 지팡이로 정강이를 때리다.
- ④ 놀라 깨어난 유모가 아이를 구하다.
- ⑤ 후에 집안에 제사가 있어 조상인 익재의 영정을 유모가 보다.
- ⑥ 전날 지팡이로 정강이를 두드린 사람이 익재임을 유모가 알다.¹⁰²⁾

102) 『어우야담』161-〈이항복을 지켜준 익재의 영령〉, 『청구야담』53-〈현몽한 익재〉.

위의 이야기를 보면 귀신의 자손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꿈에 나타나 위험을 피해가도록 도와준다. 이때 귀신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은 꿈에서 대면하게 되는 귀신이나 사람은 당사자와 기존에 관계가 있었던 사람으로 전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꿈은 현실세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즉, 현실과 관련성을 덜 맺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적 공간이다. 이런 꿈 속에서 본 귀신은 현실세계에서 만나는 귀신보다 존재감의 무게가 다소 덜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체성이 확실한 조상신을 꿈에서 만나게 될 경우, 현실에서 귀신을 직면하는 것보다 만남의 충격이 덜하다. 공포의 대상으로 간주되던 귀신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조상신의 경우 꿈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의 야담에서 조상신의 등장 빈번한 것은 당시 조정에서의 귀신론이 지배적이었다는 성리학의 결탁하여 조상신을 올바른 이치를 가진 귀신으로 포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상신이 등장하는 귀신담의 경우 조상신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제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더불어 유교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때 등장하는 조상신의 성별이 미상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남자인 것 역시 성리학의 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조상신을 섬김으로써 제사의 중요성을 이야기 해 유교질서에 부합하는 귀신담 이외에도 충과 효를 내세운 이야기, 또 조정을 이끌어가던 사람을 억울하게 죽인 이의 아들은 효를 다해도 불행한 생을 살았다는 이야기들이 나타난다.

- ① 이종회를 제외한 집안사람들이 모두 병에 걸리다.
- ② 이종회는 부친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넷째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부친의 입에 붓다.

- ③ 부친이 소생하나 이튿날 또 앓다.
- ④ 이종희가 하늘에 기도하며 나머지 손가락들을 난작하여 죽에 피를 섞어 부친께 드리다.
- ⑤ 방안에 오래전에 죽었던 종희의 외조부인 윤겸의 목소리가 들려 종희의 지성에 하늘이 감동받아 부친을 살리는 것을 허락했다고 전하다.
- ⑥ 마침내 부친이 소생하고 모친도 뒤를 이어 낫다.
- ⑦ 후에 종희는 복호¹⁰³⁾를 받고 그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지다.¹⁰⁴⁾

위의 이야기에서는 조상신에 대한 섬김과 아울러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효행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허벅지 살을 잘라 병을 앓고 있던 부모를 치료하는 이야기는 전대의 기록에도 나타나지만 이는 분명 쉽지 않은 것이다. 또 후에 부모가 살아나는 것과 아울러 종희가 국가에 의해 효행에 대한 실질적인 복호를 받고 정려문이 세워지는 결말에서 유교이념의 실현은 곧 복록으로 이어진다는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아래의 이야기는 유인숙이 역적에 올라 억울하게 죽자 그 계집종이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야기 끝의 논평이다.

순봉의 두 아들 렬(礫)과 작(礎)은 모두 다 뛰어난 재주가 있었으면서도 당시 세상에서 출세하는데는 뜻이 없어 모두 도석(道釋)의 무리 속에서 방탄(放誕)하게 지내며 몸을 감춘 채 세상을 마쳤다. 그것은 부친이 사림(士林)을 죽인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효자의 마음이 무궁할지라도 도저히 씻어낼 길이 없는지라 마침내 수치스러운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끝내 불우하게 지내다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뜻 또한 가히 슬프도다.¹⁰⁵⁾

103) 충신 효자 기타 특정인에게 호역을 면제하는 일.

104) 96-〈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종희의 효성〉 -『청구야담』, 443쪽.

105) 順朋之二子礫礎 皆有逸材 而無意進取於當世 俱散誕於道釋之流 韜晦而終身焉豈非以厥父緒士林之首惡 雖孝子之心無窮 亦無以渝條 故遂慚悵懷憤 竟輒軻而沒身者耶? 其志亦可悲夫. 268-〈주인의 원수를 갚은

위의 논평에 따르면 자식이 효를 다했다 할지라도 부친이 사림을 억울하게 죽인 일 때문에 끝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한다. 흔히 부모 대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부모 대가 벌을 받고 끝나지만 그 잘못이 크면 클수록 후대의 자식들에게까지 해가 미치게 되는데 위의 이야기에서 자식들에게까지 해가 미쳤다는 것은 당시 사회를 주도하는 사림을 억울하게 죽인 죄가 유교의 당위적 개념인 ‘효’를 행하는 것보다 우선된다는 인식이 스며있다. 여기에서 사림정치체제가 위협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 알 수 있다.

그밖에 조선후기 야담집에서는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전란에서 죽은 귀신이 집에 찾아와 가족을 돕는 시혜형 귀신담도 볼 수 있다.

- ① 임진난에 이경류가 둘째 형 대신 종사관이 되어 싸우다가 적에게 패하여 죽다.
- ② 이공의 노자가 소식을 전하여 장사지내다.
- ③ 이경류의 죽음에 노자는 목을 매어 죽고 말 또한 먹지 않고 죽다.
- ④ 이경류는 죽은 후 매일 집안에 왔고 유체는 해가 없는 곳에 있다고 하다.
- ⑤ 대상(大祥)이 되면 오지 않을 것이라 하고 4살된 그의 아들이 과거 급제 후 불행해질 것이니 그때 온다고 하다.
- ⑥ 아들이 급제하다.
- ⑦ 연로한 자친이 병환에 곁을 먹고자 할 때 이경류가 형을 불러 운무 속에서 곁을 던지다.
- ⑧ 매번 기일에 제사를 지내다 떡에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간 일이 있었을 때 목소리로 떡을 만든 계집종을 혼내다.
- ⑨ 그 이후 기일에 연수가 오래 되었어도 집안사람들이 제사를 소홀히 하지 못하다.¹⁰⁶⁾

유인숙의 계집종> -『어우야담』, 485쪽.
 106) 159-〈이경류 혼령의 강림〉 -『청구야담』, 718쪽.

여기에서는 임진왜란의 피해로 죽은 이경류가 계속 해서 제사를 얻어 먹으면서 가족을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공은 살아서는 국가의 위기 시에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 충을 실천했으며, 죽어서는 살아서 다하지 못한 부모에 대한 효행을 이어가면서 제사를 소홀히 한 자들을 훈계를 하였던 것이다. 제사를 제대로 모실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야기는 〈순회세자빈택 신령¹⁰⁷⁾〉에서도 볼 수 있다.

이처럼 남귀가 등장하는 귀신담에서 효와 충의 이념을 강화하고 사람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고 했다면 여귀를 등장시켜서는 정절이념을 내세웠음을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다.

- ① 김상공이 깊은 밤에 책을 읽는데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 ② 공은 동요하지 않고 귀신인지 사람인지 묻다.
- ③ 여인이 귀신이라면서 원통한 일이 있어 왔다고 하다.
- ④ 상공이 모습을 드러내라 하니 피를 흘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아낙의 모습을 드러내다.
- ⑤ 여인은 조정 관리의 딸로 음분한 행실을 했다고 누명을 쓰고 바람난 남편의 칼에 맞아 죽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원통함을 씻어달라고 하다.
- ⑥ 상공이 자기는 일개 서생일 뿐이라고 하다.
- ⑦ 여인은 추조참의가 될 미래를 예언해준다.
- ⑧ 다음날 공이 여인이 말한 장소에서 시체를 발견하다.
- ⑨ 후에 추조참의가 되어 원녀의 남편을 징벌하다.
- ⑩ 밤에 여인이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의 정에 대해 말해준다.
- ⑪ 여인의 말대로 공은 모년에 순국하고 후세까지 명성을 드리우다.¹⁰⁸⁾

107) 이 이야기에서 제사의 잘못은 순회세자빈이 궁궐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지리의 원근에 따라 본택 중가보다 외가를 먼저 지냈다는 데에 있다. 『어우야담』, 308쪽.

108) 64-〈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 『청구야담』, 279쪽.

위의 이야기에서 여성원혼은 자신이 음란한 행실을 하고 죽은 것에 대한 원통함을 씻기 위해 김상공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원한을 풀어준 수령> 109)에서 죽은 처녀가 겁탈의 위험 앞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이처럼 여성이 억울하게 죽은 경우는 주로 '정절'과 관련한 윤리의식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적용되는 유교적 가치에 차이가 있었던 만큼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이야기들에서 임·병 양란 이후에 양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기존의 질서에 대한 비판 의식이 고조되면서 틈이 생기게 된 기존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충과 효, 제사 혹은 정절에 대한 의식이 고취될 필요가 있었고, 여기에서 귀신담 속의 그것들을 강조한 이야기가 출현하게 된 동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이야기들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일정한 몫을 담당한 셈이다.

또한 가문을 중시하는 태도는 전통적 윤리 의식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작품에 나타난 가문회복의 의지를 가진 인물들은 조선조 후기 신분제의 동요에 의해 나타난 몰락한 양반가의 후예로 볼 수 있다. 유교이념의 실현한 사람들의 가문에 열녀문이나 홍살문, 정려문 등이 세워진 것은 그러한 이념을 교육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인의 집단에 대한 복속을 주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열녀문 혹은 정려문은 기본적인 윤리 질서마저도 혼란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영달과 가문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회 의식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결핍의 주체인 원혼과 인간과의 소통

귀신은 결핍을 전제로 한 존재이다. 하지만 귀신과 인간이 소통하지 않으면 이

109) 22-<원한을 풀어준 수령> -『청구야담』, 111쪽.

야기 속의 귀신의 결핍은 드러나기 어렵다. 결국 결핍이란 귀신이 등장하게 되는 필연성을 부여해주는 속성으로 볼 수 있는데 그로 인한 소통은 전대의 귀신담에서보다 후기의 귀신담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확연하게 드러난다.

조현설에 따르면 조선전기의 『용재총화』와 『용천담적기』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귀신담들이 귀신을 쫓는 축귀담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였다.¹¹⁰⁾ 이는 귀신과 신이에 대한 전형적인 유가들의 인식과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선전기에 귀신담을 성리학적 이념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방편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오면 일방적으로 인간이 귀신의 우위에 있어 귀신을 물리치는 이야기와 더불어 귀신에게 홀리거나, 귀신과 소통하는 모습이 드러난 귀신담을 훨씬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이는 귀신에 대한 궁금증에서 발현하여 구체적 소통을 통해 유대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결핍의 주체인 원혼과 인간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소통을 통해 귀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귀신을 이해하여 귀신과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 없이 등장하거나 말하지 않는 귀신이 나타날 경우 공포감과 놀라움은 더욱 커진다. 말하지 않는 귀신 즉, 인간과의 소통이 단절된 귀신은 더더욱 공포스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일단 ‘알 수 없다’는 의식이 형성되면 공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고 결국 두려움의 존재가 되어 퇴치나 승양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귀신과의 소통은 귀신담 중에서도 주로 청원형에서 두드러진다. 청원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원혼에 의해 이루어지며 쌍방적 시선이 존재하는 이야기로 원혼이 스스로 풀리는 법은 없다. 결국 제3인물을 통한 신원이든 직접 대면을 통한 해결 또는 파국이든 산 자와 죽은 자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원혼담이 문학 향유의 전통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인 동시에 문학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귀신과 인간의 소통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

110) 조현설, 앞의 논문 158쪽.

이다.

상공 김 아무개가 젊었을 적, 친한 벗 서너명과 더불어 백연봉 아래에 있는 영월암에서 책을 읽었다. (...중략...) 갑자기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원망하는듯 하소연하는듯 영월암 뒤쪽 멀리서부터 들리더니 가까이 다가와 창 밖에 와 멈췄다. 공이 괴이하게 여겼으나 단정히 앉아 동요되지 않고 물었다.

“귀신이요? 사람이요?”

여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다.

“귀신입니다.”

공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유명(幽明)이 다른데 어찌 감히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느고?”

여인이 말하였다.

“제가 전생에 살았을 때 꼭 해결했어야 할 원통한 일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아니면 가히 풀 수 없을 것 같기에 억울함을 하소연 하려고 왔습니다.”¹¹¹⁾

홀로 있을 때 등장하는 귀신에 대해 인간은 두려움을 느꼈으나 동요되지 않고 말을 통해 정체를 묻는 물음을 던진다. 이때 ‘유명(幽明)이 다른데 어찌 이곳에 있느냐’는 이성적 질문은 조선 전기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氣)와 이(理)의 운동 상태로 귀신의 정체를 이해하고 사기(邪氣)가 정기(正氣)를 침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¹¹²⁾ 결국 이 질문에 귀신은 대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다. 이로써 소통이 시작되며 귀신의 억울함을 이해하게 된 김상공은 비로소 그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연민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통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후에 여성원혼이 피를 흘리고

111) 金相公某少時 與親友數三人 讀書於白蓮峯下暎月菴 (...중략...) 急有女人哭聲 如怨如訴 從暎月菴後 自遠而近 至於窗外而止 公怪之 端坐不動 問曰 「鬼乎人乎」 女人長呼而答曰 「鬼也」 公曰 「然則 幽明有殊 安敢相糝」 女人曰 「吾生前生解冤事 而非公莫可解 欲訴冤而來」⁶⁴-〈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청구야담』, 279쪽.

112) 윤혜신, 앞의 논문, 216쪽.

머리를 풀어 헤친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도 놀라거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은 김상공이 ‘죽지 않았다’에서 머물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다. 원혼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김상공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공이 말하였다.

“원혼이 비록 불쌍하고 측은하기는 하나 나는 일개 서생일 뿐이니 무슨 방법으로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여인이 말하였다.

“공께서는 모년에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실 것이고 모년에는 모직에 오르실 것이며, 모년이 되면 추조참의가 되실 것입니다. 추조는 형벌을 관장하는 곳이니 제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¹¹³⁾

소통을 통해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김상공은 그 방법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통해 전해 듣게 된다. 물론 이미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 원통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그 이전에 나타나 미래를 예견해주면서 원한을 풀어줄 것을 호소한다는 점에서 서로간의 신뢰 혹은 유대를 보다 강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유대감은 상공이 후에 추조참의가 되어 원통함을 해결했을 때 보상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이때의 보상은 여성원혼이 공의 전정에 대해 말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여성원혼의 말대로 된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귀신과 인간의 ‘말’을 통해 소통한다는 것은 귀신이 인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귀신에게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했다는 뜻이 되며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했을 때 자신들과의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113) 公曰「冤魂 雖可矜惻 吾以一書生 何以解之」女人曰「公某年 必登科 某年爲某職 某年當爲秋曹叅議 秋曹 刑獄之官也 解冤豈不易哉」64-〈원혼을 달래준 김상공〉-『청구야담』, 279쪽.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런 이해와 소통은 이야기의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 되며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지되었던 귀신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소통은 현혹형에서도 드러난다. 현혹형은 일반적으로 귀신이 사람의 위치에 있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이야기를 말하지만 말을 통한 소통으로 인해 그 두려움과 괴롭힘이 절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작년 겨울 한낮에 한가로이 거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방 판자 위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심생이 담뱃대로 천정을 쳤는데, 이것은 대개 쥐를 내쫓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판자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यो. 그대를 보려고 산넘고 물건너 이곳에 이르렀으니 서로 박대하지 맙시다.”

(…중략…)

“너는 어떤 귀신이기에 무슨 연유로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

귀신이 말하였다.

“나는 문경관으로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귀택에 들어 온 것이요. 한 차례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갈 수 있겠소.”

곧 작별을 하고 갔다.

다음 날 귀신이 찾아와 어제와 같이 먹을 것을 구하더니 다 먹은 후에는 문득 가버렸다. 이로부터 귀신은 날마다 왕래하였으며, 어떤 때는 하룻밤에 머물러 한담하기도 하였으니 온 집안 식구들이 익숙해진지 이미 오래인지라 더 이상 가슴을 두근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¹¹⁴⁾

위의 이야기에서 가족들은 처음 귀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놀라 달아나기 바빴다. 하지만 귀신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한담’을 하기에 이르자 식구들은 익숙

114) 昨年冬 白日閑居 忽聞外堂板子上 有鼠行之聲 沈生以烟竹仰擊 盖逐鼠活法也 自板子中有聲曰「我非鼠 也人也 爲見君 跋涉至此 勿以此相薄也」…(중략)…「汝是何鬼 緣何入吾家」鬼曰「我是文慶寬 周行之際 偶入貴第 今得一飽 從此可往」因別而去 翌日 鬼又來 如昨日 索食物 食訖便去 從此日 來往 或留一夜閑談 一家內外 習熟已久 亦不悸怖也 39-〈귀신에게 곤경을 당한 양반〉 -『청구야담』, 185쪽.

해져서 귀신은 더이상 두려워 하지 않는다. 이는 귀신이 사람에게 더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귀신이 요귀가 아닌 문경관이라고 정체성을 밝히는 장면과 그 집에 오게 된 연유를 이야기하여 밥을 얻어먹는 장면은 오히려 귀신이라기보다는 진짜 사람에 가깝게 느껴지도록 한다. 이후 귀신은 사람과 같이 느껴져 서로 이런 저런 일을 놓고 화를 내거나 티격태격하면서 일상을 지속한다. 후에 문경관이라는 귀신이 떠나고 다른 귀신이 왔을 때는 오히려 그 등장이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차스럽게 구걸하여 열 췌미의 돈을 마련하여 너를 보냈으면 너는 마땅히 감사한 줄 알아야 하는데도 지금 다시 약속을 저버리고 은혜를 배반하고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내가 당장 관운장의 사당에 고하여 너를 벌주도록 하여야겠다.”

귀신이 말하였다.

“저는 문경관이 아니옵시다. 어찌 은혜를 저버렸다고 이르시오?”

심생이 말하였다.

“문경관이 아니라면 너는 누구인고?”

귀신이 말하였다.

“나는 문경관의 아내라오. 귀택에서 귀신을 잘 대접한다는 말을 듣고 먼길도 마다하지 않고 이 곳까지 찾아왔으면 그대는 마땅히 흔쾌하게 맞이할 것이지 오히려 욕하고 꾸짖으니 이 어찌된 일리오? 또 남녀를 서로 공경하는 것이 선비의 올바른 행실일진데, 당신이 만권의 책을 읽으며 배운 것은 어떠한 일리오?”

심생은 기가 막혀 억지로 웃음을 웃었다.¹¹⁵⁾

문경관 귀신이 한 후에 문경관의 아내라는 귀신이 와서 한다는 말이 참 가관이다. ‘이 집이 귀신을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라면서 오히려 잘 맞이해

115) 「吾向人苦乞 辦了十貫 以送汝則汝當知感 而今又背約辜恩 來作煩惱 我當訴于關廟 俾汝言朱」鬼曰「我非文慶寬 何謂背恩」沈生曰「然則 汝是誰也」鬼曰「我是慶寬之妻也 聞君家善待鬼 故不小單遠程 有此委訪 則君當欣然迎之 而反爲詬罵 何也 且男女相敬 士子之行 君讀書萬券所學何事」沈生氣短強笑. 39-〈귀신에게 곤경을 당한 양반〉 -『청구야담』, 185쪽.

야 된다고 따지고 아울러 선비가 남성과 여성을 구별 하지 말고 서로 공경해야 한다고 타이르는 장면은 두려움의 대상인 귀신을 오히려 웃음의 소재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장면에서 심생 역시 기막힌 웃음을 웃고 있다.

후에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 심생 집의 문전은 그 문답을 들으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학사 이희조는 심지어 그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까지 귀신과 대화하였다고 나온다. 이는 귀신과 사람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소통을 원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결국 이런 소통으로 인해 그나마 인명이 죽지 않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며 두려움의 대상인 귀신을 웃음을 유발하는 귀신으로 바꾸어 귀신을 친숙하고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처럼 귀신과의 소통은 소통이 없는 귀신담에서 흔히 보이는 파멸의 결말에 이르지 않고 귀신과 유대를 쌓고 친밀감을 유지하여 사건을 해결하거나 피해를 줄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소통을 통한 사건의 해결은 귀신의 초월적 능력을 발휘한 보은의 형태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되게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런 귀신담은 유형과는 상관없이 〈신막정집 귀신〉 116), 〈성황신을 복위시킨 김효원〉 117), 〈성균관의 귀신〉 118), 〈이경류의 혼령〉 119), 〈홍귀달의 혼령에게 술을 대접한 송일〉 120), 〈음사의 귀신을 굴복시킨 방백〉 121), 〈만

-
- 116) 이 이야기에서 귀신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시고 소통을 통해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로 나타난다. 『어우야담』-62, 126쪽.
- 117) 김효원이 귀신이 나타났을 때 ‘사람과 귀신의 길이 다른데 어찌 사람을 상대로 액을 끼치냐’고 꾸짖자 성황신으로부터 사당에 자신의 위판을 철수시키게 된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되어 원한을 풀어주었던 터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우야담』-63, 128쪽.
- 118) 귀신이 된 생원이 선비의 꿈에 나타나 내일 있을 잔치를 예언하고 자신에게 술과 고기를 줄 것을 요청하자 선비는 죽지 않고 살아 그 청을 들어준다. 『어우야담』-105, 197쪽.
- 119) 이경류가 임진난에 적에게 패하여 죽고 나서 마치 사람처럼 다시 집에 드나들며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사에 누가 되는 일을 해결해주고, 계속해서 정을 나눈다. 『어우야담』-167, 310쪽, 『청구야담』-159<이경류 혼령의 강립>, 718쪽.
- 120) 홍귀달의 혼령이 송일에게 나타나 자신이 죽을 때 매우 추웠었다고 말하며 데운 술을 달라고 부탁하자 송일이 술을 가져오고 그로인해 송일의 복록이 귀신의 예언을 통해 보장받았다. 『어우야담』-170, 314쪽.
- 121) 방백이 음사의 귀신이 요망한 술수로 사람들을 제압하려 하여 서로 대결하다가 방백의 기상으로 계속해서 꾸짖고 소통하여 결국 귀신의 사연을 듣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귀신을 위로하는 한편 귀신이 말해준 정전대로 방백의 셋째 아들의 수명과 지위가 융성하게 되었다. 『청구야담』-107, 474쪽.

년에 현달한 정효준> 122), <항우를 만난 거자> 123) 등에서 두루 발견된다. 귀신은 결핍을 전제로 한 존재로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 말을 통한 소통을 원하고 있으며 사람 역시 ‘알 수 없는 존재’였던 귀신과 소통하기를 원하며 소통함으로써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전대에는 배척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귀신이 후대에 와서 다양한 귀신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소통을 통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이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귀신과의 소통문제는 현대까지 귀신담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생명력의 원천으로 기인하여 계속해서 변용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3) 현실적 문제에 대한 초월적 대응

귀신과 인간의 소통문제에서 귀신의 결핍이 ‘소통’을 통해 원활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반대쪽으로 인간의 결핍 즉, 현실의 문제상황은 ‘소통’이 아니더라도 유형의 차이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귀신의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시혜형에서부터 귀신이 보은을 행하는 보은형, 또는 능력자 앞에서 귀신이 스스로 물러가는 패퇴형 유형의 여러가지 이야기에서 초월적 존재인 귀신에 의해 해결된다.

현실적으로 당면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그것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초월적 존재나 운명 등을 개입시키는 경우는 열악한 상황과 직접 대면할 자신감이거나 능력을 상실하여 그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실적 욕망을 현실의 맥락 속에서 현실적 관계를 통해서 성취하지 못하고, 환상, 상상의 비현실적 존재의 도움으로 쉽게 성취할 수 있게 될 때 서사적

122) 꿈에 나타난 단종이 이진경과 그 처의 꿈에 등장해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주었으나 그대로 따르지 않자 계속된 소통으로 일을 진행하게 만들어 일을 성사시킨다. 『청구야담』-142, 623쪽.

123) 야밤 삼경에 항우를 만난 거자가 항우와 패공이 싸웠던 이야기를 나눔으로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나서 항우가 사라진 이야기이다. 『청구야담』-181, 829쪽.

구조물은 현실적 곤궁함의 문제에 대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혜형의 이야기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살린 이야기들로는 〈유대수를 살린 유강의 현몽〉¹²⁴⁾, 〈이항복을 지켜 준 익재의 영령〉¹²⁵⁾ 등에서 볼 수 있다. 유대수가 노비에게 죽음 당할 뻔 한 것을 조상이 나타나 얼른 머리 위치를 바꾸라고 하는 것이나, 이항복이 어릴 때 우물에 빠지려던 것을 유모의 꿈으로 익재가 현몽하여 아이를 제대로 보라고 꾸짖은 것은 조상신의 도움인데 특히 앞의 이야기에서 원망을 품은 자신의 종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은 당시 그런 혼란상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때 위협에 처한 인물은 꿈쩍없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초월적 존재의 힘을 빌어 살게 되는 것이다. 〈재상을 보호하는 귀신〉¹²⁶⁾에서는 재상이 죽을 고비에 처해있었음에도 꾸준히 재상 곁에서 재상을 보호하는 귀신의 위호가 있었으므로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야기는 조상신이 등장하는 것처럼 후손과의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으로 인해 귀신들이 인간을 존경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유형의 이야기인 〈귀신도 돌보아준 권벽〉에서도 잘 드러난다.

권벽이 젊었을 적 벗의 집안 사람들이 온통 시기(時氣)¹²⁷⁾에 전염되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가서 보고자 하니 사람들이 그를 말리며 말했다. (…중략…) 외청으로 나와 찾아다니다가 권벽이 있는 것을 보고 한 귀신이 말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네.”

이 말을 들은 다른 한 귀신이 말했다.

“그는 권정승이시네. 그 분을 범할 수는 없네”

124) 『어우야담』-9, 37쪽.

125) 『어우야담』-161, 302쪽, 〈현몽한 익재〉 -『청구야담』-53, 248쪽.

126) 『어우야담』-163, 305쪽.

127) 추위로 인해 생긴 병, 급성열병, 폐렴 따위로 시환, 시절병이라고도 한다.

(…중략…)

고흥 유씨가 말했다.

“벽은 하늘을 믿고 미혹되지 않아 능히 자신을 던져 남을 구하였으니 오래도록 복록을 누리다가 마침내는 대정(台鼎)에까지 올랐으니 그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¹²⁸⁾

위의 이야기에서 재상과 권벽이 죽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귀신에 미혹되지 않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능력 때문에 살았다는 것은 역시 귀신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결국 이런 능력을 알아보고 목숨을 구해 준 귀신이라는 초월적 존재에 의해 살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어찌 됐건 재상과 권벽과 같은 성품을 갖는 것까지였으며 어디까지나 목숨을 구하는 존재는 귀신인 것이다.

또한 귀신은 병든 자도 낫게 해준다. 이경류의 경우 죽은 뒤 부친이 병환을 앓고 있는 5,6월에 당시로써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과일인 귤을 먹고 싶다는 부친의 바람에 따라 귤을 구해다주며 효성이 지극한 이종희의 행실에 감동하여 이종희의 부친의 병환을 고쳐준 외조부의 신령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병이나 목숨과 관련한 도움 외에 귀신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미래의 예언이나 출현대상의 전정에 대해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보은형에서 〈홍귀달의 혼령에게 술을 대접한 송일〉¹²⁹⁾, 〈시신을 묻어준 박엽〉¹³⁰⁾ 등과 청원형의 여러 작품에서 나타난다. 귀신이 자신의 결핍이 해소된 뒤 인간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주 나타나는 미래의 예언은 대부분 복된 것으로 당사자나 그의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지내고 복록을 누리며 명성이 후대까지 미치는 것으로 거의 동일하다.

128) 權擘少時 聞友人閤家染時氣將不救 往觀之 衆止之曰 (…중략…) 出外聽覓之見擘在 一鬼曰「其人在此。」 一鬼曰「權政丞也 不可干。」(…중략…) 高興柳氏曰 「擘信天不惑 能捨身以救人 致福祿遐遠 終躋台鼎 不亦宜乎!」 164-『어우야담』, 306쪽.

129) 『어우야담』-170, 313쪽.

130) 『어우야담』-314, 414쪽.

사실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은 ‘복되게 산다’라는 행복의 의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선비들에게 있어서 유교사회에서 복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거급제밖에 없었다. 이는 선비자신의 입신양명과 더불어 가문의 창달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특히 조선후기와 같이 전란을 겪은 상황에서 신분질서가 무너지고 몰락양반이 등장했다면 이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된다. 이제 양반이라 하더라도 이름뿐인, 살아가기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계층이나 사족들의 경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은 어찌 보면 목숨과도 같은 중요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귀신은 왜 과거급제가 아닌 단순히 재물을 주는 보은은 행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설화가 아닌 야담의 특징에서 기인한다. 설화의 경우 자신을 도와준 인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가 발견되지만 야담은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대부층을 향유층으로 하므로 사대부에게 재물보다 중요한 과거급제를 귀신의 대안으로 내어놓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구조유형 작품의 대부분은 서두나 중간부의 상황보다 결말이 상황이 향상되는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두나 중간의 악화된 상황이 잠잠적인 것이든 지속적인 것이든 귀신에 의해 조치가 취해지고 후에는 악화되기 전의 상황이나,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결핍을 환상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순과 부조리의 문제적인 현실을 ‘귀신’이라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를 현실 속에 끌어들여 위기의 문제를 바로잡아 손쉽게 해결하고, 현실적으로 불안정한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고 싶은 산 사람의 열망이 이러한 서사구조적 유형을 발생시켰다고 여겨진다.¹³¹⁾

4) 귀신담의 문학적 환상성

131) 이선희, 앞의 논문, 19쪽.

귀신담은 초월적인 존재인 귀신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소재에서부터 환상적이다. 또한 이런 환상적 소재를 이용한 서사구조의 설정은 ‘꿈’이나 환상적 사건을 이용해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귀신담은 황당무계한 이야기, 혹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로 치부되어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환상성은 전통적으로 향유되고 있는 고전문학의 한 특징이기도 했다. 그동안 천편일률, 혹은 우연성, 비합리성 등의 평가로 이러한 환상성이 평가절하된 것은 리얼리즘적 문학이 서사문학사를 잠식하면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환상성은 결국 허구의 미학적 본질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구는 나아가 결국 문학적 상상력의 근본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환상적인(fantastic) 것의 의미를 고찰해 보면 환상(fantasy)은 phainein으로부터 온 것으로 ‘표상하기’라는 뜻을 지닌다. 곧 ‘눈에 보이게 하다’, ‘보여주다’라는 의미이다. 이는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눈앞에 보이게 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을 표상하기’라는 뜻에서 환상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즉 존재와 비존재의 틈새에 자리한다는 속성이 담겨있다.¹³²⁾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는 자칫 현실세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환상적 세계와 현실세계의 관계는 환상적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는 데에서 드러날 수 있다. 그랬을 때 오히려 환상적인 이야기 속에 현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된 이야기, 혹은 금기시되는 이야기, 또는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것을 형상화하기에 허구인 이야기, 환상성을 담보로 한 이야기는 인식적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옛 동주(東州)¹³³⁾의 곁에 머물러 있던 어느날 밤 혼자서 잠을 자고 있

132)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8쪽.

는데, 문득 어떤 한 미녀가 휘장을 젖히고 곧바로 들어왔다. 용색이 대단히 아름다운 미인으로 가까이 다가와서는 희롱하며 웃더니 인하여 이불을 펴고 가까이서 잤다. 건중은 미혹해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고 욕정을 도저히 참지 못할 지경이었지만 혹한인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모두 갈옷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한사코 거절하지 그녀는 부드러운 말씨와 교묘한 화설을 쓰고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밤이 다 가도록 끝내 가지 않았다.¹³⁴⁾

위의 이야기에서 귀신으로 추측되는 아름다운 여인은 성적으로 황건중에게 유혹을 시도한다. 황건중 역시 욕정을 참기 어려웠지만 끝내 참아내고 결국 일상생활을 살 수 있었다. 만약 황건중이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 욕정을 참지 못했으면 황건중이 과연 살아남았을까. 이는 귀신과 인간이 잠자리를 한 후 인간이 병을 앓게되거나 죽게되는 여러 설화유형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성적 욕망은 ‘여인이 먼저 유혹’하고 ‘남성은 그를 거부하는 것’으로 인해 파멸까지 가지 않고 해결된다. 여인의 유혹은 남성의 시선이다. 이는 남성이 욕정을 일으킨 것의 원인으로 여인으로 표상된 ‘귀신’을 지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성적 욕망을 억누르고 목숨을 건지게 된다. 위의 이야기는 귀신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근본 욕망이면서 억압된 욕망인 성욕이 죽음의 공포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억압된 성적 욕망이 죽음의 공포로 이어지는 것은 삶이 죽음과 결부되어 있다는 관념에서 기인하며 성 자체가 위험한 쾌락이라는 것과 성이 금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¹³⁵⁾ 결국 인간은 귀신담을 통해 근본 욕망인 성욕망을 표출하면서도 그 금기에서 자유롭기 위해 환상적으로 설정된 ‘귀신’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알 수 없는 존재인 ‘귀

133) 강원도 철원의 옛 이름.

134) 古東州側 嘗夜孤寢 忽有美女 容色絕麗 押坐戲笑 仍開襦呢寢 建中心迷不定將不能閑其慾 但時月嚴寒 所服皆絺絡 意不得無訝 却之甚固. 女柔辭巧舌 嫵媚百段 終宵不能去. 82-〈호정(狐情)을 물리친 황건중〉 -『어우야담』, 156쪽.

135) 김성룡, 앞의 논문, 17쪽 참조.

신'과 금기시되는 '성욕'이 결합되어 나타났을 때 죽음의 공포는 배가 되는 것이다. 이는 읍내의 여자를 겁간하는 귀신이 인간에 의해 쫓겨났다는 <귀물의 구슬>¹³⁶⁾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으로 사회 속의 은폐된 이야기를 꺼내는 데 있어 환상성이 수단이 되어 나타난 예로 여성원혼이 등장하는 원혼담, <원혼을 풀어준 수령>¹³⁷⁾과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¹³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조'가 여성의 순결한 '정체성'을 보장했던 조선시대에 정조에 대한 위협을 받은 여성은 극단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죽음을 통해 '원귀'로 환원함으로써 비로소 '표현의 출구'를 찾게 되는 서사적 과정은 여성의 문화적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의 모순을 발견하고 성찰하는 문학 공간의 상상적 힘을 시사해준다.¹³⁹⁾

이러한 귀신의 등장과 귀신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원인, 즉 메시지는 현실의 모순이 교정되어야 함을 환기시킨다. 이런 점에서 원귀의 신원은 모순된 현실이 교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희망적 서사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모순은 죽음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다. 여성은 죽기 이전에는 이런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표현의 출구'를 찾게 되었다는 것은 환상적 장치 없이는 이야기 될 수 없었던 현실적 모순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다고 하겠다. 또한 이런 구조적 모순을 능력있는 조력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비록 여인 개인의 문제, 여성 계층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전체에 고발하여 바로잡으려 했던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귀신담 안의 환상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두려움의 형상화, 또는 은폐된 언어의 발현에 가장 적합한 허구적 장치로 볼 수 있으며 이런 허구성은 문학의 본질적인 미학으로 기능함으로써 문학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더욱 다채롭

136) 『청구야담』-5, 36쪽.

137) 『어우야담』-22, 111쪽.

138) 『어우야담』-64, 279쪽.

139) 최기숙, 앞의논문, 317쪽.

게 야담 작품을 전개시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귀신담을 활용한 학습지도안

1) 야담의 갈래와 특징 이해하기

야담집 소재의 귀신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담의 갈래와 특징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서 야담의 갈래는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야담집 소재 귀신담을 학습하기 전 차시 학습으로 야담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과제로 부여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야담이라는 작품안에 교술과 서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특징을 이해하여 설화와 소설과의 구별을 명확히 해줄 것이다. 또한 이를 교육할 때는 처음부터 교사가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방법이 아닌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설화, 야담, 소설을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해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도록 한다.

◎ 개별학습지

※ 다음은 각각 설화, 야담 갈래의 귀신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설화와 소설의 특징을 바탕으로 그것들과 형식적으로 구분되는 야담의 특징을 찾아 적어 보세요.

또 야담의 갈래는 어디에 속할 지 생각해 보세요.

<설화 속 귀신이야기>

저 사람 죽은 사람이, “놀래지 말게. 내가 하두 일러주지 못한 게 있어서 지금 자네한테 부탁을 할라고 하네.”

“아 무신 소린가?”

“내 그 송아지를 사설랑아는 고 위 갈월리라고 있어 갈월리 사람한테 송아지를 사서 하나 준게 있는데 그 건 내 아들 장가 밀천으로 준겐데, 그걸 찾아오란

말을 못하구 죽었으니 우리집 저건 그것두 없구 하면 어떻게 자식들 뺨에 뒤흔
니 그 좀 찾아다가 도루 찾아오라구 일러주게…” [중략]

그래 그 이튿날 가설랑 그런 애길 하느까느무 그 송아지 백이던 사람이
“아 글썸 여기 있다구 끌구 가라구.” 끌구 왔단 말야.

- 한국정신문화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죽은 사람의 부탁- 강원편)

<야담 속 귀신이야기>

유대수*는 옛 판서 유강의 후손으로 관직은 정언(正言)에 이르렀다. 그가 일찍
이 묘 아래에 여막을 짓고 묘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에게 원망을 품은 어떤 노비
가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대수가 한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유강이 황급히 와서
창을 밀치더니 대수에게 빨리 일어나 거꾸로 누우라고 말했다. 대수는 깜짝 놀라
잠을 깨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는데 몹시 두려웠다. 그는 그때 창쪽으로
누워 자고 있었는데 마침내 요와 벼개를 거꾸로 하고 누워 잠을 자지 못하고 있
었다. 그런데 문득 어떤 사람이 창을 열더니 무슨 물체를 양 다리 사이에 꽂아
놓고 가버리는지라 놀라서 만져 보니 큰 칼이 양 다리 사이에 찔려 있었는데, 옷
과 이불을 뚫고 요에 꽂혀 있었다. 깜짝 놀란 대수가 노복을 시켜 뒤쫓게 하였더
니 도적놈은 유강의 묘 위에 엎드린 채 달아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를 묶어와 등
잔불에 비취 보니 집안의 노비인지라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강의 신령이 도와 도적을 무덤 위에 잡아두고 달아나
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였다.

기이한 일이도다.

* 유대수(1546~1586) : 문신. 자는 사영(思永). 1584(선조17)년 안동부사에까지 올랐
으나 이듬해 규정이외에 매를 더 때린 죄로 파직당함.

俞大修 故判書俞絳之孫 官至正. 嘗居廬守喪於墓下 有一奴怨之欲殺 大修半夜夢
絳蒼黃來 排窓而告曰「速起倒臥」驚而覺 添汗洽體 深惧之. 時當窓臥宿 遂倒衾枕
臥不眠. 忽有人開窓 以物插兩股間而去 驚而捫之 大劍刺兩股 穿衣衾 着褥席矣. 遂
喫驚 僕追之 賊伏絳墳上 不能走 縛來燭之. 卽家奴也 杖殺之. 人皆云「絳之神 拿
致墳上 使不得遁」異哉.

- 유몽인, 이월영 역, 『어우야담(장서각본)』(유대수를 살린 유강의 현몽)

야담이 설화와 소설과 다른점 :

내가 생각하는 야담의 갈래 :

◎ 보충자료

<보충자료>

갈래에 대한 올바른 관점

- ① 갈래는 단지 작품의 분류를 위한 개념이 아니다 이러한 갈래의 구분은 작품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창작과 독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문학사를 온전히 파악하는 일에 기여할 때 가치 있는 일이 된다.
- ② 갈래가 형성, 발전, 소멸되는 전체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갈래가 지닌 보편적 속성에도 유의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특수한 양상을 지니게 된 연유를 파악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갈래에 대한 이해가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그 작품을 산출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 ③ 갈래가 순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을 버리고 한 갈래에 여러 갈래의 양식이 공존하고 혼합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학사의 실상에 좀더 밀착하여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 ④ 갈래의 여러 하위 구분을 통해 문학사의 구체적 실상을 주목해야 한다. 갈래는 그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더 미세하게 구분 지을 수 있고, 그 미세한 단위인 하위 갈래들의 형성·변화를 통해서 문학이 역사 속에서 갖는 역할과 의의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하위 갈래가 문학사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파악이 필요하다.

- 형설 문학교과서 上

위의 학습지에서는 귀신이야기를 소재로 구비문학의 성격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설화와 한문으로 창작된 원문이 존재하는 야담을 제시하여 직접교수법이

아닌 접근으로 야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습자는 두 작품을 비교 하면서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차이 또 기록된 야담의 표기수단이 원래 한문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야담소재 이야기에 등장하는 유대수에 각주를 달아 등장인물이 실존했음과 귀신이라는 소재가 들어간 귀신담을 예로 들어 사실성과 허구성을 동시에 갖는 야담의 특징을 알도록 하였다. 또한 한편의 서사형식인 작품의 말미에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간 것을 발견하게 하여 서사적 성격과 교술적 성격이 혼재 해 있음을 알게 하였다.

이러한 야담의 특징을 바탕으로 갈래를 이해할 때 학습자는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하여 갈래를 이해함에 있어 올바른 관점을 보충자료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보충자료와 야담의 성격을 잘 담고 있는 짧은 작품을 직접 읽으면서 ‘야담’이라는 한 갈래에 여러가지 갈래가 혼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2) 당시 사회상과 귀신담의 관련성 이해하기

조선후기의 야담은 당시의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좋은 문학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라는 양대 전란과 함께 시작된다. 이 두 전쟁은 지식인 계층의 반성과 평민의 의식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상업 발달로 평민들이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갔다. 따라서 몰락한 양반층이 생겨나게 되고 평민들은 어려운 시대에 능력있는 지도자 혹은 초월적 존재의 등장을 희망하였다. 이는 야담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바 조선후기의 시대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야담집 소개 귀신담을 선정하여 이와 같은 사회상이 문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야담의 교육적 활용에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당시의 시대상은 한편의 야담 속에서가 아닌 여러 작품 속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방법에서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조를 나누어 한 조당 각각 다른 한편의 작품을 주고 조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음으로 해석한 뒤 그

해석을 다른 작품을 맡은 조와 함께 발표하여 공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때 작품 속 어려운 말은 풀어쓰거나 각주로 제시하며 작품 뿐 아니라 보충자료와, 시각적 자료를 첨가하여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한편의 야담 속에서 사회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료 끝에 방향을 잡아주는 질문을 삽입하여 학습자가 작품을 감상하고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1조 -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상공(相公) 김 아무개가 젊었을 적, 친한 벗 서너 명과 더불어 백연봉 아래에 있는 영월암에서 책을 읽었다. 하루는 다른 벗들이 모두 일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고 깊은 밤에 혼자 앉아 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인의 곡하는 소리가 원망하는 듯 하소연하는 듯 영월암 뒤쪽 멀리서부터 들리더니 가까이 다가와 창 밖에 와 멈췄다.

공이 괴이하게 여겼으나 단정히 앉아 동요되지 않고 물었다.

“귀신이오? 사람이오?”

여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였다.

“귀신입니다.”

공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유명(幽明)*이 다른데 어찌 감히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고?”

여인이 말하였다.

“제가 전생에 살았을 때 꼭 해결했어야 할 원통한 일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아니면 가히 풀 수 없을 것 같기에 억울함을 하소연 하려고 왔습니다.”

공이 문을 열고 보니 처자는 보이지 않고 공중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며 말소리가 들렸다.



“제 형체를 드러내면 공께서 놀라실까 두렵습니다.”

공이 말하였다.

“일단 모습을 드러내 보아라.”

공이 말을 마치자 한 젊은 아낙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며 앞에 서 있었다. 공이 말하였다.

“무슨 원통한 일로 하소연하고자 하는고?”

“저는 조정(朝廷) 관리의 딸로 아무개 집에 시집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서부터 지아버가 음란한 계집에게 미혹되어 저를 꾸짖고 구타하더니 결국에는 그 음란한 여자의 참소*를 믿고, 제가 부정한 짓을 했다 말하며 한밤중에 검으로 저를 찔러 영월암 절벽 사이에 버렸습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지라 그는 저의 부모에게마저 ‘음란한 행실을 하고 도망갔다’라고 속여 말하였습니다. 제가 비명(非命)에 잘못 죽은 것도 진실로 원통할진데, 게다가 불결한 오명까지 입게 되었으니 천고(千古)의 저승에서도 이 원통함은 씻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이 말하였다.

“원혼이 비록 불쌍하고 측은하기는 하나 나는 일개 서생일 뿐이니 무슨 방법으로 원한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여인이 말하였다.

“공께서는 모년에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실 것이고 모년에는 모직에 오르실 것이며, 모년이 되면 추조참의(秋曹參議)*가 되실 것입니다. 추조는 형벌을 관장하는 곳이니 제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을 마친 뒤 여인은 하직인사를 하고 갔다.

다음 날 아침 몰래 절벽 사이를 살펴보았더니 과연 한 여자 시체가 있었는데 바로 지난 밤에 보았던 여자였다. 선혈이 흥건하여 마치 금방 죽은 사람 같았다. 돌아와 책을 읽으며 이를 비밀로 하고 발설하지 않았다.

그 후 공은 과연 과거에 합격하였고 여러 관직을 역임하여 추조참의에 이르게 되었다. 공은 원녀(冤女)의 하소연을 기억하고 곧장 관아에 달려가 법정을 열고 그녀의 남편을 잡아들여 신문하였다.

“너는 영월암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을 알렀다?”

그러나 그는 변명을 하며 신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와 더불어 함께 영월암에 가서 시신을 검열하였더니 그 사람은 말문이 막혀 곧 굴복하였다. 마침내 원녀의 부모를 불러 그들로 하여금 시체를 매장하도록 하였고 그녀의 남편은 사형에 처하였다.

밤에 공이 다시 영월암에 들어가 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있으니 그 여인이 창밖에서 울며 감사를 드렸다. 그 여자는 머리를 쪽지어 단정히 하였으며, 의복도 선명하여 이전의 그 용모가 아니었다. 공은 그녀를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자

신의 전정에 대하여 물었더니 여인이 말하였다.

“공은 모년에 모관이 되고 모시에는 모일이 일어날 것이며, 지위는 대관에 이를 것이고, 모년에 나라를 위하여 힘쓰다가 돌아가신 후 아름다운 명성이 무궁할 것이며 자손도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을 마친 뒤 하직인사를 하고 갔다. 공은 묵묵히 그것을 암기하였는데, 과연 부절(符節)이 합해지는 것처럼 그녀의 말이 맞았다. 모년에 나라 일로 순국하였으며 영원히 후세에까지 아름다운 명성을 드리웠다고 한다.

*유명(幽明) : 저승과 이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참소 :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침.

*추조참의(秋曹參議) : 형벌하는 관아의 관리

- 이월영 역, 『청구야담』中

※ 위의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해 보세요.

1. 그림과 같이 우리는 ‘귀신’이라고 할 때 소복 입은 여자귀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를 제시된 야담을 읽고서 이야기해 보세요.
2. 여인이 귀신이 된 이유를 시대 상황에 관련해 생각해 보고 아직까지 귀신의 이미지로 여자귀신이 대표성을 갖게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3. 김상공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세요.
4. 야담을 읽고 작품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시대상을 적어 보세요.

1조의 텍스트는 조선후기 여성이 원귀가 되어 능력 있는 남성 앞에 나타나 해원해 주기를 청하는 청원형의 귀신담이다. 이때 학습자는 제시된 이미지로 작품 속의 여귀의 모습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조선시대의 여성은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 중 하나였다.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여성은 조선시대만큼 소외된 계층이 아니었던 만큼 조선시대에 주류였던 성리학으로 인해 낮아진 여

성의 지위를 이해하고 여성이 귀신이 된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유교에서 강조하던 정절의 문제가 얼마나 그 시대의 여성들에게 폭력적으로 작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해원해 줄 대상으로 능력 있는 남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당시의 어지러운 상황을 타계할 덕이 있는 지도자를 찾고 있었던 민중들의 희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같은 내용의 다른 맥락에서 결국 남성의 지도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원혼형 귀신담의 유교적 회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해결자인 남성이 여성을 모함한 남성을 징벌함으로써 당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남성들에 대한 비판 의식과 그렇게 여귀를 해원해줌으로써 복록을 누리게 되는 남성의 모습에서 조상들의 권선징악적 윤리관을 엿볼 수 있다.

- 2조 -

<시신들을 묻어준 박엽>

만력(萬曆) 갑오년(1594)은 병란을 겪은 그 다음 해이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굶주려 사람들은 서로를 잡아 먹었으며 굶어죽은 송장들이 길가에 서로 베고 누워 있었다.

유생 박엽이 도성 밖으로 피난하였다가 서울에 다시 돌아오니 옛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으며 빈 집채만 남아 있을 뿐인지라 곤궁함과 굶주림으로 피곤하였고 정신마저 텅비고 궁핍하였다. 마시교(馬市橋) 남쪽에 있는 친척을 찾아 갔다가 밤을 틈타 돌아오는 길에 머리를 땅은 미녀를 만났다. 자색 비단 옷에 붉은 치마를 입고 박엽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쳤다. 박엽을 호협한 기개를 지닌 사람이었다. 게다가 젊어서는 빛나간 행동을 더욱 심하게 하였던지라 호방하게 말하였다.



“남자는 무엇 때문에 늦은 밤에 길을 가는 것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주저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왜 나를 맞이하여 가지 않는 것이요?”

“무슨 어려움이 있겠사오마는, 단지 집안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을까 두려우니 밤이 깊어지면 저희 집에 함께 가십시오.”

그녀의 말을 따라 그녀 집에 이르니 집안에는 많은 비복(婢僕)*들이 중형으로 누워 자고 있었다. 여자가 말했다.

“끓여진지라 손님을 대접해 드릴 것이 없사옵니다. 이웃집에 새로 담근 술이 있으니 그것을 구해 오겠습니다.”

동(銅)으로 만든 주발에 혼돈주(渾沌酒)를 가득 담아 가지고 와 함께 마신 뒤 더붙어 즐거움을 나누고 밤새 단잠을 잤다.

새벽이 되어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박엽은 여자의 전신이 온통 차가운 것을 깨닫고 흔들어 보았으나 깨어나지 않았으니, 그녀는 곧 죽은 사람이었던 것이다. 박엽은 놀란 나머지 일어나 뛰쳐나왔는데 집안에 누워 잠자던 사람들도 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죽은 것이었다. 박엽은 놀라서 동구밖으로 달려나왔다가 큰길가에 등불이 환하게 켜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리며 급함을 알렸는데, 그 집은 갖바치* 집이었다. 박엽은 사실을 토로한 뒤 말했다.

“놀라 전신이 떨리니 청하옵건대 술로 진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인은 그를 가엾게 여기고, 베개 옆에 술독이 있었는지라 그것을 먹이려고 동(銅) 주발을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고 종이로 덮어 놓았던 술독의 입구도 뚫려 있었다. 박엽은 또 놀라 주발이 있는 곳을 갖바치에게 말하고 함께 그 집에 가보았다.

그 집은 사족(士族)*이었다. 처자가 있었는데 장성한 뒤 끓주림에 병들어 죽었으며, 온 집안 식구들 또한 굶어 죽어 시신들이 서로 베고 누워 있었던 것이었다. 박엽은 비통해하며 관을 구비하고 수레를 세내어 서교(西郊) 밖에 장사지내고 글을 지어 제사를 지내 주었다.

박엽은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는 가선대부(嘉善大夫)*로서 의주 부윤(義州府尹)이 되어 있다.

*비복(婢僕) : 여종과 남종을 아우러 이르는 말

*갖바치 : 예전에, 가족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

*사족(士族) : 문벌이 높은 집안. 혹은 선비나 무인(武人)의 집안. 또는 그 자손.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조 종2품인 문무관의 품계의 하나.

※ 위의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해 보세요.

1. 위의 작품을 읽고 조선후기 사회상이 드러나는 부분과 이 이야기를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계층이 있다면 찾아서 의미를 말해보세요.
2. 귀신이 박엽의 앞에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시대상황을 유추해 보세요.
3. 박엽과 귀신의 성격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세요.

2조의 텍스트는 임진왜란으로 인한 국가의 혼란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텍스트이다. 학습자는 전쟁으로 인해 집이 쑥대밭이 되고 사람들이 굶주림에 죽고 죽여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그 때문에 문벌이 높은 집안의 사람들까지도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때 몰락사족, 몰락양반이 생기게 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몰락양반이 생기게 된 이유는 ‘전쟁’이라는 사건 하나 때문은 아니다. 그럴 경우 조선후기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경제가 발달하고 서민들이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양반들도 생겨났다는 조선후기의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먼저 야담을 통해 그런 계층이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귀신이었던 여인은 박엽이라는 사람 앞에 나타나 술을 대접하고 후에 자신들의 시신을 수습할 것을 기대한다. 이는 장사를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 ‘한’으로 남을 수 있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박엽은 귀신을 만났어도 죽지 않는 자이며, 귀신이 죽이지 않고 도움을 바랬던 자로서 그의 성격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박엽이 평범한 사람과 비교해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귀신과의 만남에서 담력을 지닌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귀신담을 통해 알게 된다. 또한 1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신에 대해 홀대하지 않고 장사를 지내 준 뒤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가선대부가 되었다는 것은 귀신의 보은 형태로 짐작할 수 있으며 권선징악의 윤리관까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 3조 -

<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종희의 효성>

이종희는 전의(全義)*사람이다. 그가 9세였을 때 집안 사람들이 온통 병에 걸려 그의 부모와 노복들은 일시에 병으로 자리에 누웠고 종희만이 병을 앓지 않았다. 그의 부친 이광국도 이미 오래 전부터 앓기 시작했는데 열이 내리질 않아 기질(氣窒) 한 지가 이틀이 지난 상태였다. 전신에 냉기가 치밀어도 보살피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라, 종희만이 홀로 급하고 겨를이 없었다. 병든 노비를 발로 차 일으켜 미음을 끓이게 한 후 칼을 가지고 넷째 손가락을 잘라 그릇에 피를 받으니 그릇 가득이 온통 붉었다. 젓가락을 사용하여 부친의 입을 열고는 잘저어 섞은 후 그것을 계속해서 입에 부었다. 반 그릇 쯤 먹이자 숨쉬는 기운이 미미하게 콧구멍으로 나왔다. 종희는 놀라고 기뻐하며 마침내 한 그릇을 다 먹이니 부친이 이내 소생하였다.



열효각 정려문

그러나 그 이튿날 포시*썸이 되자 또 전처럼 기질(氣窒)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종희는 목놓아 소리내어 울고 하늘에 기도하면서 나머지 손가락들을 안석위에 놓고 난작(亂斫)하니 많은 피가 흘렀다. 한 병든 계집종이 이를 목격하고는 놀라 부르짖으며 그를 붙들여 껴안았다. 종희는 그녀를 뿌리쳐 가게 하면서 집안 사람들을 놀래키지 말도록 하였다. 죽에 피를 섞어 또 한 그릇을 부친에게 드렸다. 바야흐로 죽을 올릴 때 문득 방안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더니 말했다.

“종희야! 너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명부*에서 이미 너의 부친 살리는 것

을 허락했노라. 이제는 마음을 놓고 비통해 하지 말아라.”

그때 집안의 안팎에 병들어 누워 있던 사람들 중 그 소리를 듣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말하였다.

“장단 생원의 목소리이다.”

장단 생원은 종회의 외조부 윤겸인데 이미 오래 전에 죽었던 인물이었다.

부친이 살아나 열이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날마다 소생하여 마침내는 완쾌되었다. 모친도 그 뒤를 이어 나왔다.

종회의 일을 칭찬하며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마침내 본 읍에 글을 올려 아뢰었다. 읍의 원님이 이를 보고 크게 기특하게 여겨 그 효행을 감영(監營)*에 올렸다. 그러자 도백 이성룡이 명하여 복호(復戶)*를 내리고 조정에 아뢰어 그 마을에 정려문*이 세워지게 되었다.

*전의(全義) : 충청남도에 있는 지명. 현재는 연기군 전의면임.

*포시 : 신시(申時), 즉 오후 3시에서 5시.

*명부 : 사람이 죽은 뒤에 심판을 받는 곳.

*감영 : 조선 시대에,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아.

*복호 : 충신 효자 기타 특정인에게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일.

*정려문 : 충신, 효자, 효부,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세운 상징적인 건축물.

- 『청구야담』中

* 위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1. 위의 작품에서는 효자 이종희가 등장합니다. 이종희가 행하는 효행 심청의 효행,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효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

2. 이종희의 효행에 따라 어떤 보답이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말해 보세요.

3. 위의 글에서 당시 사회가 유교의 덕목을 요구하기 위해 행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3조의 텍스트는 이종희가 지극한 효행으로 부친의 목숨을 살리고 복호를 면제 받아 정려문이 세워지게 되는 서사가 중심을 이룬다. 하지만 그 효행은 자신의

손가락을 난작하는 일이었다. 이는 요즘의 학습자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과연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이 진정한 효인지, 생각하게 된다. 교사는 이런 효행과 더불어 심청전의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효행을 예로 들어 과연 이 시대에 진정한 효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이종희의 효행에 하늘이 감동받아 부친을 살렸다는 이야기를 전한 죽은 외조부 윤겸의 목소리를 통해 효를 행하면 조상신이 나타나 도와준다는 옛날 사람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식은 제사의식과 관련되어 조상신을 잘 모셔야 한다는 생각으로도 연결됐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당시 사회가 이러한 효행을 얼마나 장려하고 강요했는지를 복호를 내렸거나 정려문을 세웠다는 데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효행을 장려했다는 것은 충, 효, 열을 이념으로 내세웠던 유교이데올로기의 장려를 목적으로 하여 성리학적 이념체계에서 나라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려 했던, 또 그로 인해 성리학의 이념을 내세웠던 지배층의 기틀을 공고히 다지려 했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4조-

<주인의 원수를 갚은 유관의 계집종>

유관*이 역적(逆籍)에 올라 억울하게 죽자 그의 노비들은 공신(功臣)의 집에 하사되었다. 그때 정순봉*이 수훈을 세웠기 때문에 인숙집안의 노비들 가운데 많은 수가 그에게 사패*로 귀속되었다.



을사사화로 소윤 윤원형에 의해 죽은 대윤 윤임의 묘 그들이 처음 유인숙의 집에서 왔을 때 모든 계집종들은 얼굴을 가리고 슬프게 오열하였지만, 그 중 자태와 용모가 아름다운 한 계집종만은 얼굴빛이 특이양양

하며 전혀 슬퍼하는 기색 없이 다른 계집종들을 돌아보며 질타했다.

“우리들이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이 한 것이다. 어찌하여 누구는 너희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마땅히 섬기거나 할 것이지 신·구는 왜 가리는 것이냐?”

그녀가 유독 성의를 다하여 새 주인을 모시자 순봉도 그녀를 믿고 가까운 곳에서 시중들게 하여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러 해 동안 매 맞을 만할 실수도 저지른 적이 없었다.

하루는 순봉의 꿈속에 어떤 귀신이 나타나 그의 머리와 얼굴을 누르는지라 소리를 지르고 깨어났다. 그 이후로 그와 같은 꿈을 빈번히 꾸게 되어 마침내는 고질병을 앓아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부인이 신들린 무당을 찾아가 물어보니 그녀가 말하였다.

“베개 속에 요귀가 있소.”

베개 속을 헤쳐보니 과연 그 안에 해골 하나가 있었다. 유인숙의 집에서 온 계집종이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잡아 심문하자 그 계집종은 매 한 대도 맞지 않고도 스스로 사실을 자백하였다.

“우리 주인님이 무슨 죄가 있기에 당신 집 늙은이가 죄를 날조해 죽였소? 내가 비록 겉으로는 당신 집에 마음을 붙이는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우장육부가 썩고 꼬인 것이 여러 해였소. 이 때문에 몰래 배리(陪吏)와 간통하였는데 배리가 처음에는 두려워하며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가 애써 꼬이자 마침내는 서로 정성을 다하게 되어 내가 말하는 것을 모두 따르게 되었소. 그래서 몰래 죽은 사람의 해골을 찾아오게 하여 베개 속에 넣었던 것이요. 이제 이미 내 주인님의 원수를 갚았으니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소. 속히 나를 죽이시오.”

순봉의 자제들은 마침내 그 계집종을 빈소 옆에서 때려 죽인 뒤 그 일을 숨기고 끝내 누설하지 않았는지라 당시에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순봉의 막내아들 작(礎)이 나이 70이 넘어 임종하게 되었는데 그 때 비로소 남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안에서 깊이 숨겨왔던 것이니 남에게 말하지 마시오. 살아오는 동안 내내 그 계집종의 절개와 의리를 기특하게 여겼던지라 죽음에 임해 비로소 말하는 것이요. 아! 유관 계집종의 의열은 비록 예양(豫讓)*의 의열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이요. 다만 그 요사스러웠음이 한스러울 뿐이요.”

순봉의 두 아들 렬(礮)과 작(礎)은 모두 다 뛰어난 재주가 있으면서도 당시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에는 뜻이 없어 모두 도교와 불교의 무리 속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허황하게 지내며 몸을 감춘 채 세상을 마쳤다. 그것은 부친이 사림(士林)을 죽인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효자의 마음이 무궁할지라도 도저히 씻어낼 길이 없는지라 마침내 수치스러운 분노를 가슴에 품은 채 끝내 불우하게

지내다 죽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 뜻 또한 가히 슬프도다.

*유관(柳灌, 1484~1545) : 조선 전기의 문신. 1543년 평안도관찰사가 되어 하삼도 백성들을 평안도지방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지휘하였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이 되어 서정(庶政)을 총관하였으나, 정권을 장악한 소윤(小尹)일당이 일으킨 을사사화로 서천으로 유배되어 가던 도중 과천에서 사사(賜死)되었다.

*정순봉(1484~1548) : 문신. 자는 이령, 호는 성재로 1504년 별시문과에 정과(丁科)로 급제. 명종이 즉위하자 소윤(小尹)으로서 윤원형, 이기 등과 함께 윤임, 유관, 등 대윤을 제거하는데 적극 활약, 을사사화의 원흉(元兇)이 되어 우의정까지 올랐다. 1548년 유관으로부터 빼앗은 노비 중 주인의 원수를 갚으려던 비(婢) 갑이(甲伊)에 의해 열병이 감염되어 죽었다.

*사패 : 궁가나 공신에게 나라에서 산림, 토지, 노비 등을 내려주는 것.

*예양(豫讓) : 중국 전국시대의 제(齊)나라 사람. 그는 주군 지백이 조양자에게 죽자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몸에 옷칠을 하고 문둥이처럼 행장을 꾸미고 양자를 죽이려 했으나 마침내는 잡히어 죽었다.

- 유몽인, 『어우야담』中

※ 위의 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해 답해 보세요.

1. 야담은 장르의 성격상 사실성과 허구성을 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을 찾고 당시 시대상을 이야기해 보세요.
2. 순봉의 두 아들이 효자였음에도 복록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보세요.
3. 유관의 종이 복수에 성공한 방법과 그 방법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세요.

4조의 텍스트는 을사사화의 이야기를 귀신담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이는 야담이게 역사적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성에서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는 사건으로 학습자는 인물의 설명과 사진을 보고 을사사화를 떠올리고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당시 조선후기는 사림이 득세하던 시기로 대윤과 소윤이 나뉘어져 대립하다가 대윤이 처형되면서 대윤의 일당이었던 유관이 해를 입은 것

인데 이를 통해 사회에서 일어난 당파의 분파가 후에 당쟁의 한 소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3조의 경우 효행을 행했을 때 하늘이 감동하여 부친의 목숨을 살려 주었지만 위의 이야기의 경우 순봉의 두 아들이 효자였음에도 복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알 수 있듯이 부친인 순봉이 사람을 죽인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되어있다. 순봉이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중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는 벌을 받았는데 그 아들에게까지 화가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죄라는 뜻이 된다. 사람을 죽인 죄가 효행으로는 막을 수 없는 큰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조선후기 절대왕권이라기 보다는 사림파가 훈구파를 몰아내고 득세하여 사림정치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정치현실을 이야기해준다.

다음으로 여중이 주인의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죽은 사람의 해골을 찾아오게 하여 배계에 넣거나 그로 인해 병을 얻은 순봉의 부인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조선후기 성리학이 만연했던 사회의 이면, 즉 민중들에게 민속신앙이 여전히 유효한 신앙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민속신앙을 이용한 방법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무당 또한 효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야담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의 시대상>	
학년 반 조 이름 :	
1조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2조 <시신들을 물어준 박엽>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3조 <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중희의 효성>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4조 <주인의 원수를 갚은 유관의 계집중>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 각조의 이야기를 듣고 야담 속에 드러나는 시대상을 정리해 봅시다.	

각조에서는 자신의 조가 맡은 야담 작품을 가지고 의논하여 그것에서 발견되는 시대상을 발표하게 된다. 그럼 다른 조원은 위의 양식에 간단히 적게되고 모든 발표가 끝나면 각각의 조원들은 자신들이 적은 각조의 의견을 종합하며 하나의 글을 만들어냄으로써 야담 작품에서 나온 총체적인 시대상을 정리해 볼 수 있다.

3) 원혼과 인간의 소통 문제 이해하기

귀신담을 전통적으로 귀신의 정체와 귀신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 긍정적인 귀신관에 입각한 이야기인가 부정적인 귀신관에 입각한 이야기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런 귀신담들은 끊임없는 변용을 거듭하여 현대사회에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에까지 주로 계승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주로 귀신을 퇴치하는 인간의 이야기가 중심이 된다. 그 중에서도 단순한 패퇴형이야기가 아닌 청원형 중에서도 원혼담이 주로 나타난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는 원혼담에서 인간과 귀신의 소통이 가장 두드러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소설 뿐 만이 아니라 게임, 영화¹⁴⁰⁾, 만화, 인터넷매체를 통해 다양하게 변용되었다.

지식 정보 사회로 접어들면서 매체의 다양화가 두드러지며 상황에서 매체의 발달은 문학의 본질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문학의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문자와 책이라는 한정된 매체에 갇혀 있던 데서 벗어나 다양하게 모습을 바꾸어 대량으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다.¹⁴¹⁾ 이런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국어에 ‘매체’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귀신담 그 중에서도 원혼담의 현대적 변용들은 이러한 문학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수행되는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적합한 교육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친숙한 매체인 영화를 귀신담과 함께 관련지어 교육하는 것은 당시의 귀신담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귀신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대에 들어 매체를 달리하여 재생산되고 있는 귀신 등장 이야기들 중에서도 전형적인 귀신 이야기와 전통이 닿아 있으면서도 차별화를 하고 있는 영화를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귀신이 산다>를 중심으로 전통적 원혼담과 대비하여 귀신담이 문화적으로 변화한 맥락을 짚어보고 이러한 현상의 의미와 효용

140) 아랑설화와 영화 <아랑>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수미,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에서 자세히 고찰되었다.

141)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국어』, 316쪽.

을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귀신이 산다>는 2004년에 개봉한 12세 관람가로 귀신이 등장하는 코믹 호러 장르의 영화이다. 영화의 시작은 남자 주인공 박필기가 열심히 일한 결과 어릴적 부터 겪은 집 없는 설움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집을 사는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필기가 산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었지만, 필기 앞에 수시로 나타나 온갖 종류의 협박과 위협적 상황으로 그 집에서 나갈 것을 강요하는 귀신을 도저히 당하지 못해 급기야 도망을 친다.

그러다 우연히 맞은 번개로 필기는 귀신을 볼 수 있고, 귀신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제는 필기가 귀신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맞대결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필기는 귀신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귀신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어서 그 귀신이 여자임도 알게 되고, 귀신이 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보며 비꼬거나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귀신은 당황하지만, 이제는 필기와 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자신이 가진 사연을 털어놓는다.

귀신의 존재를 알고서는 자신의 집에서 도망하거나 집을 처분할 생각만 하던 필기가, 귀신의 사연을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귀신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귀신이 지키고자 하는 집을 없애려는 부동산 매매업자에게서 다른 귀신의 도움을 빌어서까지 집을 지켜낸다. 필기와 필기 직장의 작업 반장의 노력으로 마침내 필기의 집에 있던 여자 귀신은 남편을 만나 편안히 떠난다는 것이 <귀신이 산다>의 전체 줄거리이다.

이런 내용은 원혼과 인간 주인공의 대결과 교감, 그리고 신원 과정이 핵심을 이루고 있어 전통적인 원혼담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원혼담이 현대의 문화와 맞물려 변용될 때에는 그 차이가 반드시 존재한다. 『청구야담』 소재의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과 현대의 영화 <귀신이 산다>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귀신이 산다>
귀신의 형상	머리를 풀어 헤치고 피를 흘리는 공포스러운 형상.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닌 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
귀신과 인간의 소통 조건	담력이 세고 능력 있는 인간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함.	귀신에게 쫓기던 인간이 우연히 번개를 맞는 사건을 계기로 귀신을 보고 소통하게 됨.
귀신의 원한 형성 배경	지아비가 음란한 여자에게 미혹되어 자신에게 음분의 죄를 씌우고 칼로 찔러 죽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와 죽어서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던 집에서 남편 귀신을 기다림.
해결자의 성격	담력이 세고 능력 있는 남성	평범한 남성

이 영화와 야담 속 원혼담의 차이는 크게 보았을 때 첫째, 귀신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게 된 조건과 둘째로 원한 형성의 배경, 셋째로 해결자의 성격, 넷째 귀신의 형상이다. 교사는 학습자에게 동일한 원혼담이 문화적 변화 과정에서 어떠한 동일성과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의 설화와 고전 소설을 보다 친근한 영화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고전 텍스트만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깊이 있는 이해와 자기 경험으로의 환원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 <귀신이 산다>를 보고 다음 그림에 보고 빈칸에 줄거리를 적어 보세요.



<예시>

박필기는 어렸을 때부터 집을 가져본 일이 없어서 집을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 후 결국 집을 사게 되었다.

	<p>그 집엔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었다.</p>
	<p>박필기는 두려움의 대상인 귀신을 쫓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p>
	<p>하지만 귀신을 쫓을 수 없었던 박필기는 귀신에게 쫓겨 지붕 위 안테나로 도망을 가게 되고 우연히 벼락에 맞게 된다.</p>
	<p>그 후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집이라고 우기며 대립하기 시작했다.</p>
	<p>눈에 보이는 귀신은 인간의 형상을 한 여자귀신으로 소통이 지속되자 두려움의 대상이 친근함의 대상으로 바뀌어 친밀감이 생겼다.</p>
	<p>그러던 중 귀신에게 사연을 듣게 되었다. 귀신은 사랑하던 사람과 조출한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집은 그 사람과 결혼한 후 같이 짓게 된 사랑의 결실과 같은 의미였</p>

  	<p>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해 둘은 버스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여자를 죽고 말았으며 남편의 행방은 이때부터 찾을 수 없었다.</p>
	<p>그래서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박필기는 그런 귀신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p>
	<p>박필기는 이곳을 철거하려던 사람들과 맞서서 여러 귀신들과 함께 집을 지켜내었다.</p>
	<p>결국 남편이 오랫동안 한 병원에서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귀신을 그곳에 데려다 주었다.</p>
	<p>아내를 만난 남편은 비로소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로인해 그 둘은 다시 만나게 되었다.</p>



들은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인사를 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줄거리를 쓰는 활동의 학습지를 나누어 주게 되면 학습자는 훨씬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게 되며 교사가 의도한 중요한 서사구조를 빼먹지 않고 확인하면서 꼼꼼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학교에서 직접 모두 같이 영화를 볼 수 없는 상황일 때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영화의 스크린 샷을 통해 서사구조를 찾아가면서 볼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위와 같은 토대로 온전하게 영화를 감상했다면 다음 학습지를 통해 전통적 원혼담인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과 비교 감상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과 <귀신이 산다>를 감상하고 물음에 답하세요.

1-1.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귀신의 형상은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세요.

1-2. 귀신의 형상이 변했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지 말해보세요.

2-1. <귀신이 산다>에서 박필기가 벼락을 맞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답해보세요.

2-2. 박필기가 벼락을 맞는 것을 기점으로 전과 후에 귀신과 박필기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3. 김상공과 박필기는 귀신과 소통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김상공과 박필기의 성격을 비교해보고 본인은 어느 쪽의 사람과 가까울지 생각해 보세요.

4-1. 두 작품에서 귀신이 원혼을 갖게 된 이유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해보세요.

4-2. 귀신은 원혼을 갖고 있기에 편히 저승으로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요. 만약 지금 내가 귀신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저승에 가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4-3. 이 시대에 귀신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어떤 사연을 가진 귀신들이 등장하게 될지 상상해서 써 보세요. 또한 이런 사연들을 귀신이 아닌 살아 있는 사람들의 입을 빌려 말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의 차이가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먼저 귀신의 형상은 전통적인 원혼담에서 특히 공포스럽게만 나타났던 것이 <귀신이 산다>에 오면 인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이것은 등장인물과 귀신의 정서적 교감과 친밀감 형성에 더욱 도움이 되는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귀신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원혼을 인간 삶의 연장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현대적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귀신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은 전통적인 원혼담에서 담력이 세고 능력이 있는 남성이었다. 결국 남들과는 다른 차이를 지닌 막강한 해결자가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귀신이 산다>에 오면 단지 귀신을 무서워하는 평범한 남자가 어찌다 벼락을 맞게 되어 소통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소통을 코믹한 요소의 추가로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구조상의 특이성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소통하게 됐을 때 필기는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순수한 감정으로 돕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원귀가 되는 이유, 즉 원혼의 형성 배경이다. 원혼담의 경우 남귀보다 여귀가 많고 이는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에서 강요당하던 불평등한 폭력에 맞설 힘이 없었던 이유에서였다.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에서 여성이 정절을 의심당하여 죽음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귀신이 산다>에서는 현대에 있을만한 억울한 사건들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이는 얼마든지 이 시대에 다르게 변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등하는 학생이 1등을 하기 위해 1등 학생을 죽였다든지, 성적이나 왕따문제로 비판 자살을 하였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낀 사람이 목숨을 끊었다든지 등 얼마든지 요즘의 문제로 치환되어 제2의 원혼, 제3의 원혼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교사는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과 <귀신이 산다>를 접한 학습자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원혼이 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라고 말이다. 원혼이 된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는 이상 학습자는 여러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들을 나누어 현대에 원혼이 될 수 있는 이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요즘 세상의 귀신 되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혼담은 근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다. 원혼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원혼을 가진 귀신은 대체로 사회적 약자이자 소외된 자 혹은 집단인 것이다. 학습자는 이런 말하기 방식을 통하여 억압된 사회 제도나 규범, 통념 등을 비판하는 비판적 읽기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고전문학교육이 갈래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다양한 작품을 통한 다채로운 고전문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에서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 대안으로써 야담집 소재의 귀신담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여 교과서에서 소개되지 않았던 야담집 소재의 귀신담을 소개하고 그 교육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동안 야담은 당대의 사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허구성을 가미한 이야기로 설화와 소설문학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르의 난해함으로 인해 문학교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여 18종 문학교과서에서는 야담의 교육이 명칭에서의 통일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혼란스럽게 가르쳐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귀신담은 한낱 황당무계하고 권선징악의 천편일률적인 이야기로만 해석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귀신담은 소재면에서도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며 단편이라는 야담의 특성에 힘입어 완전한 작품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며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귀신’이라는 소재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환상성이 문학적 상상력과 결부되어 끊임없이 변용되어 온 것이다.

이런 귀신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귀신담의 형성 배경과 귀신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귀신담의 유형을 나누었다. 유형을 분류할 때에는 귀신에 대한 학습자의 부정적 편견을 의식하여 긍정적 귀신관과 부정적 귀신관으로 나누고 긍정적 귀신관은 각각 시혜형, 보은형, 청원형으로 세분하고 부정적 귀신관은 현혹형, 징벌형, 폐퇴형으로 하위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에서 발견되는 귀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귀신담의 층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귀신담의 다양

한 층위를 이해를 통해 귀신담에 나타난 문학교육적 측면의 다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야담집 소재 귀신담의 문학교육적 다의성은 첫째, 귀신담을 통해 당시의 유교 이념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는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런 혼란상을 해결하기 위해 성리학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던 사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정절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원혼담과 조상신이 도와주는 이야기, 혹은 효행을 한 사람이 정려문을 받게 되고 부친의 목숨을 살렸다는 여러 야담작품 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결핍의 주체인 원혼과 인간과의 소통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귀신과 인간과의 소통은 원혼담과 현혹형, 보은형 등에서 두루 나타나는데 소통의 결과로 인간은 귀신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던 것에서 유대감과 신뢰감을 쌓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결국 귀신은 소통을 통해 결핍을 해결하고 인간은 그로인해 목숨을 건지거나 복록을 누리는 서사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소통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당시의 현실적 문제에 대한 초월적 대응으로 귀신담이 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사람들이 전쟁의 공포와 가난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초월적인 존재를 내세워 극복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었다.

넷째, 귀신담의 문학적 환상성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었다. 귀신담은 그 소재에서부터 환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허구의 미학적 본질이며 문학적 상상력의 근본조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특징으로 오히려 귀신담은 인간의 욕망, 혹은 성과 같은 금기의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회의 은폐된 이야기들을 배출할 수 있는 통로의 작용을 하였다.

이런 문학교육적 효용을 적절히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야담의 갈래를 이해함에 있어서 보충자료와 함께 직접 설화와 비교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차이점을 이해하게 하였다. 또한 야담에 드러난 시대상황을 알기 위

해 각각 조를 나누어 교사가 선정한 야담집 소재 귀신담 작품인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 <시신들을 물어준 박엽>, <조상신을 감동시킨 이증희의 효성>, <주인의 원수를 갚은 유관의 계집종>을 읽고 의견을 나누어 총체적인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귀신과의 소통문제에서는 전통적인 원혼담인 <원혼을 달래준 김상공>과 그러한 원혼담이 현대에 와서 변용된 영화 <귀신이 산다>와 비교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다양한 매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문학의 의미와 함께 전통적인 귀신담과 현대의 귀신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였다.

이번 연구는 고전문학의 새로운 텍스트를 선정하여 교육적 가치를 찾고 교육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구체적인 현장 조사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미흡하나마 소외되어 있으면서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발견하여 교육함으로써 다채로운 고전문학 교육의 발전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본 연구를 보충하여 이론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풍부하고 흥미 있는 고전 문학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1. 자료집

- 유몽인, 시귀선·이월영 역주, 『어우야담』, 한국문화사, 1996.(장서각본)
시귀선·이월영 역, 『청구야담』, 한국문화사, 1995.(국립중앙도서관본)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5.
강황구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상문연구사, 2002.
구인환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교학사, 2002.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지학사, 2002.
김대행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교학사, 2002.
김병국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케이스, 2002.
김상태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도서출판 태성, 2002.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도서출판 디딤돌, 2002.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민중서림, 2002.
박갑수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지학사, 2002.
박경신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금성, 2002.
박호영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형설출판사, 2002.
오세영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대한교과서(주), 2002.
우한용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두산, 2002.
조남현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 2002.
최웅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청문각, 2002.
한계전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블랙박스, 2002.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문원각, 2002.
홍신선 외, 고등학교 『문학』(상,하), (주)천재교육, 2002.

교육부, 『국어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2. 단행본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1.

안병국, 『귀신설화연구』, 규장각, 1995.

이강욱, 『한국 야담 연구』, 들베개, 2006.

정명기 엮음,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1』, 보고사, 2001.

_____, 『야담문학연구의 현단계 3』, 보고사, 2001.

정옥자, 『조선후기 역사의 이해』, 일지사, 199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2.

하은하, 『귀신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과치료, 2004.

3. 논문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제 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강진욱, 「원혼형 전설연구」, 『구비문학』5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_____, 「원혼설화에 나타난 원혼의 형상성 연구」, 『구비문학연구』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_____, 「원혼설화의 담론적 성격 연구」, 『고전문학연구』제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2.

고형진, 「문학교과서의 ‘갈래’ 서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문학교육학』제13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4.

권성임, 「고등학교 국어과 한문단편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성룡, 「한국고전소설의 환상성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_____, 「고전 서사 문학을 중심으로 본 환상의 미학적 특성 연구」, 『국어교육』제102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 _____,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제15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 김성미, 「귀신설화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연호, 「야담 장르의 변천 소고」, 『우리어문연구』제11집, 우리어문학회, 1997.
- 김우형, 「조선 후기 귀신론의 양상 - 17·18세기 유귀론과 무귀론의 대립과 균열」, 『양명학』제19집, 한국 양명학회, 2007.
- 김재용, 「귀신이야기의 기호학」, 『한국학논집』제30집, 계명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문학교육학』제11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3.
- 박종오, 「한국의 귀신설화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박희병, 「야담과 한문단편 장르 규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제8집, 한국한문학회, 1985.
- 서유경, 「귀신 등장 이야기의 문화적 변화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제19권,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 신원기, 「鬼神談에 나타난 人鬼의 관계 양상과 의미」, 『어문학교육』제21권, 한국어문교육학회, 1999.
- 윤주필,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시론」, 『국문학논집』제15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 _____, 「귀신이야기의 설화적 전통과 범주」, 『도술어문』13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1997.
- 윤혜신, 「『어우야담』소재 귀신담의 귀신과 인간의 교류방식과 특징」, 『민족문

- 학사연구』제34권, 민족문화사학회, 2007.
- 이선혜, 「조선조 후기 귀신담 형성의 사회적 동인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이수미, 「아랑설화의 현대적 변용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임재해, 「귀신설화에 포착된 인간과 귀신의 만남 양상과 귀신인식」, 『설화와 요괴』, 아시아설화학회, 2006.
- 장윤선, 「조선 전기 귀신 담론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정환국, 「17세기 이후 귀신이야기의 변모와 ‘저승’의 이미지」, 『고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 조동일, 「15세기 귀신론과 귀신이야기의 변모」, 『문학사와 철학사이— 관련 양상』, 한샘출판사, 1992.
- 조현설, 「조선 전기 귀신이야기에 나타난 神異 인식의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 최기숙,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冽上古典研究』제 16집, 冽上古典研究會, 2002.
- 최수정, 「야담 <검녀>의 교육적 의미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
- 최정윤, 「용재총화 소재 逸話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ABSTRACT

Scheme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Ghost tales in Yadam to the Literature Education - Focused on 『Eou Yadam』and 『ChungGu Yadam』 -

Cha, Gin A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aper starts with posing the problem that there exists no varied education of classical literature through the various literary works due to the imbalance according to the parts of the classical literature in the educational institutes. As an alternative, the paper seeks to introduce the ghost tales in Yadam uneducated in the textbook and make the educational scheme for them, approving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ghost tales in Yadam.

It is true that Yadam has been alienated from the literature education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genre although it ha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literature through the role of a bridge between the narrative literature and the novel literature, and through its literary artistry as the tale mixed with fiction reflecting the social reality of the

time. This situation shows that Yadam is being taught in such a confusion that even the name of Yadam is not unified in 18 literature textbooks. Especially, the ghost tales in Yadam are analyzed only into the stereotyped tales of nonsense and poetic justice, and their literary value is not recognized.

However, the ghost tales are interesting enough to attract the learner's interest and are easy to understand as the complete work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Yadam as a short story. In addition, the ghost tales have the educational value offering the examination of the human's essential desire and the problem of death and life. For these reasons, the subject matter of ghost has been changed continuously with the fantasies associated with the literary imagination since early times.

In order to understand these ghost tales, the types can be divided through understanding the tale forming background and the views of the ghost.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ghost and the man, the types are classified into the positive view and the negative view of ghost. The positive view is subdivided into the blessing type, the gratitude type and the petition type respectively, and the negative view is subdivided into the bewilderment type, the punishment type and the defeat type. By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the ghost and the man, and the process becoming the ghost and its meaning in these types, the various layers of the ghost tales were understood and the equivocality of literary education existing in the ghost tales was found on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First, the literary educational equivocality of the ghost tales in Yadam is that Confucianism ideology of the time was strengthened through the

ghost tales. It is analyzed that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consisted of the background of the confused social image due to the war and the famine, and tried to strengthen the system of Sung Confucianism in order to solve the confused situation. It is confirmed in the tales of revengeful spirits who died of the faithfulness, the tales of ancestor spirits helping their descendants, and the Yadam works of the man of filial piety receiving the assiduity gate and saving his father's life.

Secondly, the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the man and the revengeful spirit as a deficiency subject is revealed in the ghost tale.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man and the ghost as a unrealistic being appears in the tales of revengeful sprits, the bewilderment type and the gratitude type. The man perceives the ghost as an object of fear, but accumulates the bond and the credibility with beginning to communicate with the ghost. Finally, the narration process that the ghost solves the deficiency and the man saves his life or is blessed, and the narrative atmosphere changes from the horror to the humor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cation.

Thirdly, it is related with the effect of the ghost tales through the transcendental correspondence about the realistic problems of the time.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the people's will to overcome the horror of the war and the poverty through the transcendental being under the judgement of the impossibility of the realistic method to cope with the horror of the war and the poverty can be found.

Fourthly, the literary fantasy of the ghost tales can be reviewed. The ghost tales have the fantastic characteristics from the subject matter, which is the esthetic essence of the fiction and the basic condition of the

literary imagination. By these characteristics, the ghost tales operate as the channel of pushing out the man's desire, the taboo problem such as sex, the horror of death, and the concealed tales of the society.

As a scheme for adequately educating and learning such a literary educational efficiency, the understanding of the parts of Yadam helps the learners themselves have the interest and find the difference through their comparing the tales directly with the supplement data. Also,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the time revealed in Yadam, the students read <Kim Sang Gong solacing the revengeful spirit>, <Bap Yup burying the dead bodies>, <the filial piety of Lee Jong Hee impressing the ancestor spirit> and <the woman slave in the official house revenging her owner> as the ghost tales in Yadam distributed to each group by the teacher and exchange their opinions to understand the overall image of the time. In the problem of communication with the ghost, <Kim Sang Gong solacing the revengeful spirit> as a traditional tale of revengeful spirit and its modified modern movie <The ghost lives> are compared each other. With the meaning of the literature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media through this comparison, the opportunity is offered to understand the gap between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ghost tales and review the reason.